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5호 HYUNBULNEWS.COM 2025년 6월 18일(음력 5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발생부터 진화까지

- 10시 22분 ● 국제회의장서 화재 첫 확인 회의장에 전파 대피 시작 청사 내부 300명 대피 완료
- 10시 25분 ● 종로소방서 지휘부 도착 소방, 경찰 등 진화 작업
- 10시 39분 ●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 10시 44분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 11시 36분 ● 화재 초기 진화 완료
- 11시 57분 ● 화재 완전 진화 발표

동원 인력 306명(소방 142·구청 10·경찰 150 등)

동원 장비 55대(소방 35·구청 3·경찰 15 등)

해당 인포그래픽은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 후 보정작업을 거쳤습니다.





1 청사 화재 직후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대피하고 있다.
2 신고 직후 종로소방서 대원들이 출동하고 있다.
3 소방대원들이 국제회의장 외부서 소화작업을 하고 있다.
4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5 전소된 총무원 국제회의장 로비 모습.

급박했던 95분…침착 대처로 '인명 피해 無'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전 10시 22분부터 11시 57분까지. 6월 10일 발생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조계종 총무원 청사) 화재 발생부터 진압까지 걸린 시간이다. 약 95분 동안 조계종 총무원 사부대중은 침착하고 발 빠른 대처로 인명 사고 없이 추가 피해를 막아냈다.

화재가 처음 확인된 곳은 조계종 중앙종회 제234회 임시회가 열리던 국제회의장의 로비. 목격자들에 의하면 국제회의장 로비 천장 에어컨에서 스파크가 있었고 이후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시 22분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회의장 대중에게 알렸고, 중앙종회의원 스님과 교역직·재가 종무원들은 평소 화재 대피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총 300여 명의 인원이 자력으로 무사히 대피를 완료했다.

화재 신고 접수 직후인 10시 25분 종로소방서 지휘부가 기념관에 먼저 도착했으며, 곧바로 조계사 경내에 임시 대피소와 응급진료소를 설치했다. 화재 진압 인력과 장비도 속속 도착해 소화 작업에 들어갔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142명, 종로구청 공무원 10명, 경찰 150명 등 총 306명이 동원됐고, 소방차량 35대와 구청 차량 3대, 경찰차 15대 등 55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종로소방서는 발화 지점인 2층 국제회의장 천장에 대한 외부 소화 작업과 내부 진입을 통한 소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지만 불길이 확산되자 10시 39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적극적 소화 작업으로 11시 36분에 초기 진화가 이뤄졌고, 21분 뒤인 11시 57분에 진화가 최종 완료됐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불교중앙박물관 기획전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 전시 불화들의 이운작업도 발 빠르게 이뤄졌다. 전시 성보 15건 33점(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유산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중 유리 전시시설이 아닌 외부에 노출된 전남유형문화유산, 비지정문화유산 2건 8점이 1차 이운됐고, 나머지 13건 25점은 2차로 이운이 진행·완료됐다. 전시 성보들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운됨에 따라 6월 29일까지 예정됐던 기획전은 조기 종료됐다.

조계종 청사 국제회의장 화재
6월 10일 10시 22분 첫 확인
청사 내 300명 자력 대피 완료
11시 57분 화재 완전 진압돼
평소 화재 대피 훈련 등 도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에서 인명 피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꾸준히 진행해 온 화재 대응 훈련 덕분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총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훈련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재가 종무원은 "법으로 규정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화재가 발생하니 훈련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면서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성보 이운도 차질 없이 이뤄져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화재 진압을 완료한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11일 서울 종로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 임시 상황실을 설치했으며, 통합 안내 전화(02-2011-1700)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 부서 및 담당자에게 전달·처리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6월 12일 행정업무 안내 공지
문화사업단 3층 상황실 설치
안내 전화 운영하며 행정 처리
총무원, 행정 정상화 '고군분투'
"처리 지연 예상돼…양해 부탁"

조계종 총무원은 "현재 종단의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면서도 "당분간은 민원 응대 및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종도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종무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대내 일정도 재개됐다. 진우 스님의 집무실 및 접견실은 조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담소'에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6월 12일 화재 이후 첫 일정으로 울산사암연합회 산불재난 성금 전달식을 소화하기도 했다.

화재 이후 후속 조치들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6월 11일 기념관 내 1차 전기 안전 진단이 시행됐으며, 6월 13일 오전 10시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하는 합동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은 화재 전문 청소 업체에 의뢰, 기념관 전체에 대한 청소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소가 완료되면 기념관 시설 안전 진단과 시범 운영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조계종 총무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안전이 최종 확인된 후 재입주 및 업무 재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개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며 "조계사 인근 임시 사무소 개소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는 제 부덕 종도께 깊이 참회"

진우 스님, 6월 11일 메시지 발표



지난 6월 10일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진우 스님은 6월 11일 발표한 '종도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어제 국제회의장에서 임시 종회 개회 중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계셨던 종회의원 스님들을 비롯하여, 사부대중과 종도 여러분께 크나큰 놀라움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총무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관계 당국의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한 진우 스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건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를 다하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저의 부덕에서 비롯된 일이오니, 이에 다시 한 번 깊이 참회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진우 스님은 조속한 시일 내 시설 복구와 원상 회복을 약속하며 "이번 일을 깊은 교훈으로 삼아, 향후 사찰과 종무기관 전반에 걸쳐 안전 점검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종단의 안정과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정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첫 비구니 법계위원에 본각·계호·광용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화재로 회기 앞당겨 폐회

화재 후 조계사 교육관서 속개
원로의원에 장윤 스님 추천해
격론 끝 동화사조사특위 구성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6월 10일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제234회 임시회를 하루 만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로 제233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나 또다시 화마에 발목을 잡혔다.

중앙종회는 10일 오전 10시,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안건 채택을 논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긴급 대피하고 정회했다. 이어 화재 진압 후인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에 마련된 임시 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속개했다.

종회의원 55명이 참석해 속개한 임시회는 오전에 중단된 '안건 채택의 건'을 확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초심호계위원을 7인에서 9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안'은 차기 회의로 이월키로 했다.

신임 원로의원에는 장윤 스님(전등사 회주)을 만장일치 추천했다. 장윤 스님은 상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동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재적본사는 동화사다. 지난해 4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제8·9대 및 11~15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정국장, 은적사·대전사·전등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법인사무처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를 역임했다.

'종법 개정의 건'은 수정안이 발의된 '사찰법' 개정안과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나머지 안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키로 했다. 이어 종무보고와 종책질의는 이월하고 상임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는 종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사진 왼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조계사 불교대학에 마련된 임시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회의를 진행했다.

비구니 법계위원에는 본각·계호·광용 스님을 만장일치로 위촉 동의했다. 법계위원에 비구니 스님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종회에서 법계위원을 비구 9인에 비구니 3인을 포함해 총 12인으로 하도록 '법계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격론 끝에 만장일치 통과했다. 대표 발의자 설암 스님은 "동화사에서 말사 주지와 신도들에게 금품과 총림 해제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해종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호법부에 진정서와 투서도 접수된 만큼 조속히 특위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스님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성로 스님은 호법부장 도심 스님에게 "호법부에 진정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도심 스님은 "현재 동화사 관련 진정이 접수되어 있고, 종단 자문변호사 등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을 제기해 조사를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암 스님은 "동화사는 총림실사, 종단 감사,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종회가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적 감사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반양론이 맞서자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찬성과 반대 각 3명씩의 의견을 듣고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진화 스님은 "총무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다른 안건은 모두 이월하면서 동화사 특위 구성 안건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사로서는 존폐의 문제가 달린 엄청난 사안이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종회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비공개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가자 10분간 정회했고, 특위 구성에 반대 의견을 표했던 스님들이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30여 분 가까이 속개하지 못했다.

임시회는 4시경 41명의 의원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해 '제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위원장은 대표발의자 설암 스님이 맡고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후 종회는 회기를 단축하고 폐회했다.

동화사 '총림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서울중앙지법, 6월 11일 판결
"총림해제 사법심사 대상 아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제기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1일 동화사가 지난 4월 8일 제기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법원은 "총림 지정 해제에 관한 결의는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총림 지위 해제에 따라 동화사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동화사를 총림에서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제9교구본사동화사특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특별감사에서 회계 관리와 기관 운영에 문제점이 발견돼 총림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의 결정 후 동화사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동화사는 4월 3일 '팔공총림 임회'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의결은 종헌종법을 위배한 무효"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총림지정해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중앙종회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앙종회는 4월 15일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동화사의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4일에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거듭 밝혔다.

6월 10일 열린 제234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으나, 종회는 정회와 속개 끝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에 대해 동화사는 11일 "특위 구성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함에 따라 이후 본안 소송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신흥사-흥천사, 3년 묵은 갈등 해결 '합의'

합의서 서명으로 갈등 봉합
진우 스님 "화합으로 발전"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서울 흥천사가 3년 가까이 이어온 갈등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금곡 스님(흥천사 회주)과 삼조 스님(신흥사)은 6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그간의 갈등으로 종단에 누를 끼친 점을 참회하고 종단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합과 배려를 통해 신흥사와 흥천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부장 성화 스님의 중재하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금곡 스님과 삼조 스님은 지난 5월 말 종단 및 신흥사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합의하고, 수행정진과 전법교화에 진력할 것을 확인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양측이 그간 사법기관에 제기했던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종단 호법부에 제기했던 진정 사건을 취하하고, 언론을 통한 일체의 비방과 비난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신흥사와 흥천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수령 기자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 스님 원적

6월 9일 세수 70세, 법랍 59세



태고종 순천 선암사 원로의원이자 광주전남종무원장인 관응당 월인 스님〈사진〉이 6월 9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70세, 법랍 59세.

월인 스님은 1967년 지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선암사와 광주 문빈정사 등지에서 수행 정진하며 출가자로서의 길을 걸었다. 광주 광덕사 주지를 역임한 뒤, 1996년에는 광주 법륜사를 창건해 주석하며 포교에 헌신해 왔다.

스님은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일응 스님으로부터 범음법패 및 작법을 전수받고, 광주영산작법보존회를 창립해 지역 전통 불교의식의 전승과 활성화에 앞장섰다.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작법 분야 기능보유자로 등재됐다.

특히 스님은 매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영령을 위한 추모제와 다수의 불교 의식에 직접 참여해 불교의례의 현대적 계승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2018년에는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으로 취임해 종단 행정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복지재단 "시대 맞는 불교복지 실천"

6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진우 스님, 미래 복지 비전 제시
기후위기 등 사회적 약자에 초점
삼천사인덕원 등 종정 표창 수상
정관 스님,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웃과 함께 한 30년, 자비나눔의 미래 100년. 자비나눔의 꽃을 피워내겠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이 모든 중생을 구원해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의 서원을 세우고 시대에 맞는 자비실천을 다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6월 11일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30년 역사를 되짚고, 미래 100년 복지비전을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1995년 창립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21개였던 시설은 181개로, 300여 명으로 출발한 복지 종사자는 5600명으로 늘었다. 10억원이 안됐던 예산규모는 현재 4000억원 이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아동과 노인에 국한됐던 복지서비스도 청소년·보육·장애인·노인·종합복지 등으로 까지 확대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 같은 재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기후위기 대응 복지 △디지털 약자에 대한 관심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속 돌봄 위기 △고립과 고독사 △아동학대·방임 대응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등을 향후 미래 복지 비전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복지는 돌봄을 넘어 제도의 문제를 바꾸는 실천이어야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불교복지는 이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까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자비실천은 계속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종정상은 사회복지법인 삼천사인덕원(이사장 성운 스님)과 이문희 조계종자원봉사단 화목회 팀장이 수상했다.

총무원장 표창 단체 부문에는 △사회복지법인 혜명 △서울 종로 조계사 △미타사 정수암 △영화사 △아현노인복지센터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 수상했다. 총무원장 표창 개인 부문에는 △해성 스님(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지웅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최종환(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신미경(진달래마을 원장) △채종현(부산금정시니어클럽 관장) △오재원(재천장애인복지관장) △임아화(가람슬기어린이집 원장)가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안았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박사 제1호인 정관 스님은 2007년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소임 맡아 지역 노인복지 발전을 견인해 왔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기념법회에 앞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김형용·홍송이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불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토대'를 주제 발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은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과 같이 정진해 나눔의 꽃을 피워내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불교사원聯 회장 법해 스님 취임

6월 12일 서울 은평구청서
사원연합회장 이·취임법회



서울 은평구 불교계를 이끌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 신임 회장에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이 취임했다.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이하 사원연합회)는 6월 12일 서울 은평구청 5층 은평홀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신임 회장 법해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과분한 소임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대중이 셋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나온다'는 불가의 말처럼, 은평구민을 위해 40여 년 헌신해 준 성운 대종사의 법향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부처님의 자비가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디지털 시대를 기반으로 1700년 불교역사와 문화를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국민행복 프로젝트인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종교를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면서 "이 같은 서원이 이뤄지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1982년부터 43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왔던 성운 대종사는 이임사에서 "사암연합회는 군·교정·지역을 중심으로 초종파적 전법 활동을 펼쳐왔다"고 술회하며 "후임 법해 스님은 능력 있고 불심 있는 훌륭한 수행자다. 신임 회장이 연합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함께 해 달라"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성운 대종사는 도심 속 수행공동체의 본보기를 세우고 연합회의 위상을 높여 종도들의 귀의처가 됐다"며 그동안 은평구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대종사의 원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임 회장 법해 스님을 향해서는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시대와 호흡해 온 원력으로 사부대중과 함께 조화와 공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성운 대종사와 김미경 은평구청장에게 각각 공로패를 전달했다.

본엄 스님의 사회와 덕현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이·취임식은 △삼귀의 △우리말 반야심경 △치사 △공로패 수여 △이임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이·취임식 후 사암연합회는 '불기2569년 호국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배희정 객원기자

제7회 묘공학술상 남수영·오현희 수상

대행선연구원 6월 5일 발표
우수상 2명…대상 수상자無


남수영


오현희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제7회 묘공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 남수영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와 오현희 한국외대 철학문화연구소 초빙연구원이 선정됐다"고 6월 5일 발표했다. 올해 학술상에서는 최우수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못했다.

남수영 교수의 수상작 '불타의 무아설 재고'는 붓다 당시 자아를 의미하는 여러 어원을 분석함으로써 불교의 무아설이 일방적인 자아 부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아가 승인되었음을 밝힌 연구로서 무아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현희 초빙연구원의 '대행 선사의 보리심관에 나타난 생활선 고찰'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념을 현대적 생활선으로 풀어내려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7회 묘공학술상 시상식은 6월 14일 제9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우수상 두 편에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대학원생을 지원하기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올해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에는 모두 14명이 신청, 최종적으로 9명이 선정됐다.

신중일 기자
〈학술대회 차주 상보〉

서울 옥천암, 독립 순국선열 추모하다

6월 7일, 서대문형무소서 호국 음악회 개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스님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호국 음악회가 열렸다.

서울 옥천암(주지 원경 스님)은 6월 7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특설무대에서 '호국 음악회-님의 침묵'을 개최했다.〈사진〉

광복 8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음악회는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불교계 독립운동가 3인을 기리는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 '영웅' OST 공연 후 트로트 가수 김태연, 장사익 씨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시민들에게 보훈의 가치와 역사의식을 한층 깊게 느끼게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진제공=조계종

호국음악회를 개최한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민과 함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음악회를 준비했다"면서 "특히 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수많은 스님들의 호국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라고 음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서대문구청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윤달 맞아 생전예수재 특강 열린다

경제어산보존회, 6월 24일부터 5주 과정

올해 윤달을 맞아 경제어산전승보존회가 생전예수재 특강을 개최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스스로 죄업을 참회하며 악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쌓고자 하는 불교의례다.

특강은 6월 24일부터 5주간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서울 강서구 홍원사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초대 어산어장이자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경제어산 보유자인 동주 원명 스님을 비롯해 경제어산 이수자인 문현 스님과 정오 스님이 교수사를 맡아 강의를 진행한다. 입회원서는 홍원사를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하며 수강료는 20만원이다.

한편,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신규회원을 모집한다. 보존회는 학술대회 개최 및 도서 발간, 의례문 연구, 수륙재 정기 시연, 전승 교육 등 전통불교의례와 경제어산 수륙재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02-2658-3100 여수령 기자

2025 서울시 무형유산 제 43호

경제어산 보존회 신입회원 및 예수재 특강 신청자 모집

나모붓다야
서울시 무형유산 제 43호 경제어산 보유자인 동주원명 스님은 근대 어산범패 중흥조인 벽응, 송암스님께 범패를 배운 후 50여 년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 및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어장 역임, 범패 교육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왕성한 기량을 선보이고 계십니다. 2013년 서울시 무형유산 제43호로 지정 되었으며, 이후 학술세미나 개최, 도서발간, 의례문 연구, 수륙재 정기시연, 전승 교육 등의 보존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불교의례와 경제어산 수륙재 에 동참하여 함께 공부하시며 계승 발전에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빠라미따

경제어산 신입회원 접수
02-2658-3100









예수재 특강접수 안내
금년 2025년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 예수재 특강을 시행합니다. 보유자인 동주원명 스님과 함께하는 경제어산의 재의식에 뜻있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기간 2025년 6월 24일 까지
수강기간 총 5주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18시00분~19:30)
대 상 비구, 비구니 모든스님 (종파무관)
교 수 사 1. 동주원명(서울시 무형유산 제 43호 경제어산 보유자)
2. 문현 (경제어산 이수자) 3. 혜천정오(경제어산 이수자)
교 재 예수시왕 생칠지재의
장 소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31-6 홍원사 2층 교육장
준 비 물 입회원서(방문시 직접 작성), 증명사진 1장, 승려증, 필기도구, 가사장삼
예수재 특강 수강료 20만원 (교재포함)
입금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이조원) 845702-04-162325 (입금시 속명,법명 기입)
문의 및 접수안내 02-2658-3100

‘진관사 태극기’ 배지 고발 촌극…항일유산 몰이해 점철

구주와 변호사, 국기모독죄로 李 대통령, 우 국회의장 고발
‘진관사 태극기’ 배지 착용 이유
비판 나오자 ‘유물 복원’ 운운
보훈부 “3.1운동 사용된 태극기” 불탄 흔적 민족 항일 정신 상징
높이 평가돼 현재 ‘보물’로 지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계속 착용하고 있는 태극기 배지의 원본은 ‘진관사 태극기’다. 이 배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 민권 세상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명확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대통령에게 달아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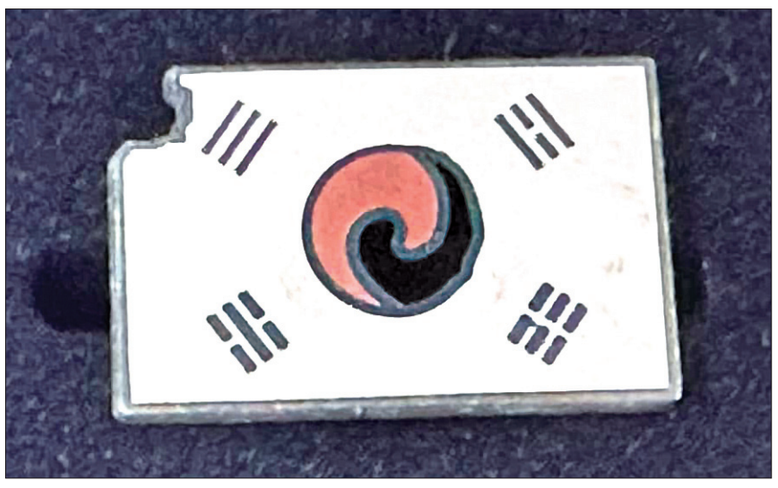
이 같은 ‘진관사 태극기’ 배지에 대해 전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인 구주와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국기모독죄로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 변호사는 6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형법 105조의 국기모독죄에 딱 걸렸네요. 태극기를 손상, 모욕, 제거하는 국기모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적었다.

6월 9일에는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형사고발했다”면서 ‘진관사 태극기’를 복원하지 않고 배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유튜브 게시판에 남겼다. 그는 “보통 유물을 복원할 때는 찢어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정상적인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욱이 국기라면 더더욱 그래야겠지요”라고 썼다.

하지만 사실상 진관사 태극기 배지로 이 대통령과 우 의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다. 당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됐다. 신문류는 〈경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종보〉 〈신대한〉 〈독립신문〉 등 5종이다. 이들 신문들이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열린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달아준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 한 배지. 이를 국기 모독으로 규정한 전 자유통일당 대선후보인 구주와 변호사가 6월 9일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을 고발했다. 사진=우원식 의장 페이스북

태극기를 숨긴 인물은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 스님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백초월 스님은 3.1만세운동 직후 비밀 지하신문인 〈혁신공보〉를 발간해 독립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불교계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만주지역의 독립군 부대에 제공하는 등 국내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인물이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1919년에 제작된 태극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실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9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발견된 당시부터 태극기는 왼쪽 모서리가 불에 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등에게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에 탄 자국 역시 우리 민족의 항일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흔적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처에서 부로 승격된 국가보훈부도 진관사 태극기의 불에 탄 자국에 대해 “탄 흔적과 손상으로 보아 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당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태극기”라면서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덧칠한 것으로 강렬한 항일독립의지와 애국심이 드러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구 변호사의 논리대로라면 3·1운동의 항일 정신이 담긴 태극기의 불탄 자국을 지우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감정위원을 역임했던 최선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은 “한 유물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역사성과 예술성, 의미 등을 종합해서 본다”며 “‘진관사 태극기’는 태극기 도상의 변천부터 3·1운동 참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유산이다. 그럼에도 불에 탄 흔적을 복원하라는 것은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힐난했다.

민불련 40주년 “민주주의엔 완결 없다”

6월 6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40년사 아카이브 구축 추진

19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민중불교운동을 이끌었던 민중불교운동연합(이하 민불련)의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6월 6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40주년 기념추진위원회 위원장 인묵 스님(조계종 어산어장)·공화춘 유족 대표·서동석 민불련 3기 의장과 고문을 맡은 청화 스님(전 조계종 교육원장)·성문 스님(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법타 스님(조계종 명예원로의원)·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여연 스님(해인총림 다주)·현각 스님(원주 성불원 주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린 함세웅 신부와 이부영 민중민주운동협의회 의장,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 전병용 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참석해 의의를 더했다.

인묵 스님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도는 시민들이 고통받는 암울한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았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 속 기록을 함께한 것”이라고 민불련 활동을 평가했다.

이어 “민불련이 잊히지 않는 것은 중생들, 민중들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모두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불련은 1985년 5월 4일 ‘자주·민주적 불교 건설’을 서원한 사부대중의 연합조직으로 출범했다.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와 10.27법난 공론화, 94년 종단 개혁 등 불교계 안팎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민불련은 4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향후 민중불교운동 아카이브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故종명 스님 유훈, 동국대 발전으로 승화

스님 후원자 1억4000만원 기부
“종명 스님 인재 양성 뜻 받들어”

선운사 말사인 성불사 주지였던 故 종명 스님의 ‘불교 인재양성’ 유훈이 후원자와 도반 등에 의해 구현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6월 5일 본관 4층 접견실에서 ‘故종명 스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종명 스님의 오랜 후원자인 관음행 보살과 능가산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 스님과 인연이 있는 기부자 4명이 학교를 직접 찾아 발전기금 1억4000만원을 기부했다.

관음행 보살은 “스님께서는 석전 박한영 스님과 같은 선운사 인연을 소중이 여기셨다”며 “종명 스님의 생전 뜻인 불교인재양성을 받들기 위해 종고 스님과 상의해 동국대에 기부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성불사 주지를 역임했던 故 종명 스님이 동국대 발전기금 1억4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은 스님의 오랜 후원자였던 관음행 보살이 맡았다.

이에 윤재웅 총장은 “인재불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렇게 동국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석전 박한영 스님을 재조명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로터스관 건립사업 등 故종명 스님의 뜻에 따라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발전기금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2025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진흥원의 4대 공모사업은 2003년 제정된 ‘대원상(大圓賞)’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불교학술·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이다.

불법홍포를 위해 노력하는 출·재가자와 단체를 시상하는 대원상은 출가부문(개인·단체), 재가부문(개인·단체), 특별 정진상(조계종 소속 해외 유학승 2명) 등의 부문으로 공모하며, 상금은 대상 3000만원, 특별상 1500만원, 장려상 1000만원, 특별 정진상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제11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대학생·대학원생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초·중·고·대학·대학원 불교동아리에는 50~150만원의 활동 지원금이 수여된다. 공모 희망자와 단체는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흥원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11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6월 30일부터 7월 25일까지 접수 받으며, 접수는 진흥원 이메일로 하면 된다. 선정 단체 및 기관에게는 200~5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제12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 학술 부문과 불교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이뤄진다. 접수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며, 진흥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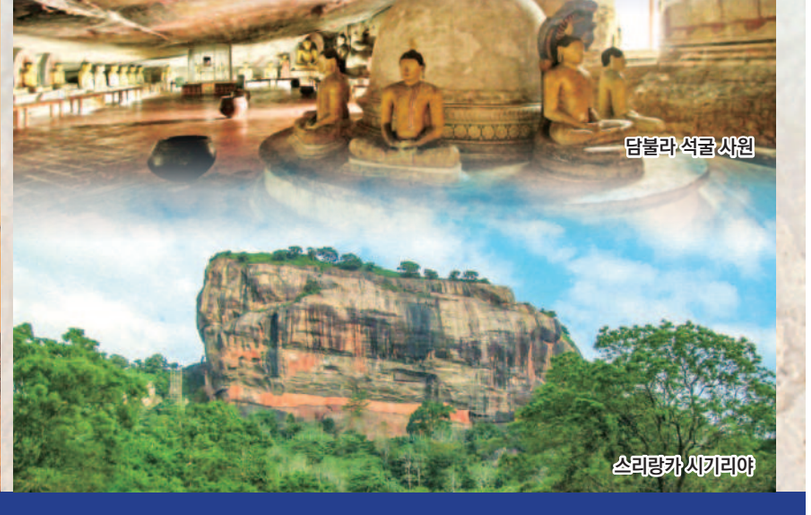
상세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 보드가야

인도 마하보디 대탑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
▶동참금 : 280만원부터~

명사산 월아천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담불라 석굴 사원
스리랑카 시기리아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사회 위해 목숨 바친 이들 극락왕생 하소서”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5. 생명나눔 천도재 현장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서 천도재
생명나눔 영가 등 450위 봉안돼
한국전쟁 시 산화된 육군사관생도
코로나19 희생자 위패 함께 모셔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한 ‘불암사 · 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1회 생명나눔 천도재’.

장기기증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한 이들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이 남양주 불암사 마당에서 펼쳐졌다.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는 물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불암사에서 ‘불암사·생명나눔회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제31회 생명나눔 천도재’를 봉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매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자리이타를 실천하며 생을 마치고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다.

2017년부터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생도들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봉행하고 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1950년 6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불암산 인근 지역에서 유격작전을 펼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적과 맞서 싸우다 산화했다. 불암산 일대의 동굴을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던 유격대는 불암사 주지 스님과 석천암 주지 스님,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격대는 총 4차례 공격 작전을 시도했고 북으로 끌려가는 주민 100여 명을 구출하는 등 상당한 전과를 거뒀다. 이들은 육사 생도 1기 10명, 2기 3명, 성명 미상 3명, 육군 7사단 7명, 중사 1명, 성명 미상 6명 등 20여 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하기 직전 안타깝게 전사했다. 역사상 유례없이 계급과 군번 없는 사관생도 신분으로 참전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7사단 용사들, 그리고 유격대에 도움을 준 불암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천도재에는 매년 육사 생도들도 동참해 선배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올해도 2명의 생도가 참석, 호국정신을 기렸다.



천도재는 영평사 정림 스님을 증명법사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천도재 동참자들이 합장한 채 불암사 경내를 돌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또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위한 위패도 함께 모시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올해 천도재에는 호국영령과 장기기증자, 의인(義人) 등 450여 명의 영가가 모셔졌다. 천도재는 영평사 정림 스님을 증명법사로 시련과 대령, 관욕의식, 법문, 상단불공, 관음시식 등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회심곡에 따라 동참자들은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 헌다하고 향을 사른 후 차례로 절을 올렸다. 불교전통의식과 바라춤에 이어 경기도무형문화재 살풀이 이수자인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이 극락무 시연으로 경내를 장엄한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동참자들은 합장한 채 마당을 돌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간절한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날 ‘생명나눔’을 실제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천도재를 이어 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일면 스님은 2000년 1월 8일, 뇌사자의 간을 기증 받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생명나눔’의 산증인이다. 스님은 “1998~1999년 2년 사이, 간경화로 16번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결국엔 2개월 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기적으로 22살 청년의 간을 이식 받고 25년째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을 ‘선재’라고 호칭하고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떠난 영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선재 영가에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생명나눔을 실천하려 한다”고 말해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경내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부스를 마련, 천도재 동참자 외에도 등산객 등에게 자비나눔의 의미를 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일면 스님의 생명나눔 법문

“몸과 마음 바로 써야 성불합니다”

주리반특가, 잡일 소임 정성껏
놀림에도 고된 수행 후 깨달음
진심 실천해야 존경받는 어른 돼



부처님 재세 시, 주리반특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 후 경전 한 구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 문밖에서 울고 있는 그에게 부처님은 ‘불진제구(佛塵除垢)’라는 구절을 주며 수행을 재개하게 합니다.

‘먼지를 쓸어 내고 때를 닦아 낸다’는 뜻의 이 짧은 구절조차 주리반특가는 온전하게 외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됐지만 주리반특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하찮게 보이는 마당 쓰는 ‘잡일’을 담당했지만 주리반특가는 일심으로, 꾀부리지 않고, 열성을 다해 정성껏 소임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쓸고 닦는 것에 담긴 청정비구로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바보 비구’로 놀림 받던 그였지만 빗질 한 번, 미소 짓기라는 단순노동을 반복하는 ‘마당쓸기 3년’의 고된 수행을 통해 훌륭한 제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깨달음은 단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 평범한 일상 속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얻고 궁극적으로 진리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훌륭하게 해내는 일, 그래서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 부처님이 일러주는 니르바나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리반특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무거운 입’도 한몫했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업을 짓지 않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잘 써야 성불할 수 있습니다.

정리=임은호 기자

* 이 법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열린 ‘제31회 생명나눔 천도재’에서 설한 법문 중 일부입니다.

마하무용단, 신규단원 위촉

6월 6일, 12명에 위촉장 전달
일면 스님 “생명나눔의 얼굴”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단체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이 신규단원 위촉식을 갖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마하무용단은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 대웅전에서 ‘신규단원 위촉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여러분은 마하무용단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얼굴”이라며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정현숙 단장은 2017년 창단 당시를 떠올리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우리가 무용을 만나 소중한 인연으로 애정이 넘치는 사이가 됐다”면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고 생명나눔과 더불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신규단원은 “더 많은 나눔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마하무용단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달 진행하고 있는 환자치료비 전달에도 마음을 보탰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 남양주 불암사=임은호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9일~14일 2차 : 모연중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범어사 사찰음식체험관·연구소 공식 개소

교육 · 연구 복합 공간 구성
관광 연계 지역콘텐츠 확장
'범어사표 사찰음식' 정립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6월 1일 사찰음식의 정체성과 현대적 가치를 구현할 '사찰음식연구소'와 '사찰음식체험관'을 공식 개소했다.

범어사는 6월 10일 선문화교육관 내 체험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립 취지와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체계, 중장기 계획 등을 소개했다.

정오 스님은 "사찰음식은 수행자의 삶 자체로, 자연과의 조화와 생명존중, 절제와 정성의 철학이 담긴 정신적 실천"이라며 "이 공간이 단순한 조리교육장이 아니라 현대인에게 치유와 성찰을 제공하는 생명문화의 장이자, 한국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찰음식체험관은 선문화교육관 2층 기존 다실 공간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50평 규모로 강사석 1곳과 대형 실습 테이블 2기(총 12인 수용), 개별 조리대와 수납장, 싱크대, 식기와 조리도구 일체가 마련되어 있다. 조리 시연과 실습, 이론 수업이 연동되는 형태로 설계되었으며 향후 별도 건물 신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은 매주 4일간 운영되며 월·화요일에는 사찰음식반, 수·목요일에는 한식디저트반이 개설됐다. 초급·중급·고급 3단계로 회당 12명 정원으로 운영된다. 총 1년 과정 이수 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현재 1기 초급 과정은 모집 즉시 마감되었으며, 수강생들은 수업마다 범어사에서 수확한 식재료로 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사찰음식연구소장은 주지 정오 스님이 맡고, 부소장에는 범어사 복지국장 서연 스님이 임명됐다. 실무 총괄을 맡은 해봄 기획팀장(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 본교에서 식물성 요리 과정을 수료한 유영리 수석연구원, 박상우 책임연구원, 장도석 총괄자문위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두 동국대 사찰음식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이다.

사찰음식체험관은 교육 기능을 넘어, 관광·문화·국제교류를 결합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표 프로그램은 △'비움의 맛! 채움의 기운!' 외국인 대상 사찰음식 체험 △부산시·부산관광공사 공동기획 '부산도심관광 및 금정산 범어사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다. 금정산 둘레길 탐방, 명상, 전통등 만들기와 연계한 사찰음식 체험형 패키지 상품도 개발 중이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사찰음식연구소 관계자들이 6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6월 18일 열리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만찬도 이곳 체험관에서 열린다. 약 200명의 국내외 스님과 관계자를 위한 오찬 메뉴는 연구소 연구진과 초급 수강생들이 직접 준비할 예정이며, 모든 식재료는 범어사 인근에서 자란 채소와 약초를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찰음식을 국제행사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첫 사례다.

범어사는 스님들이 실제 수행 중 섭취해 온 전통 식단을 복원하고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과즙을 채수로 활용한 사과냉면, 두부·버섯을 재료로 한 사찰식 만두, 송화가루 음료가 시연됐다. 이어 초급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비빔국수와 물국수, 미나리 김치가 함께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해봄 책임연구원은 "사찰음식을 '잘 만드는 법'보다 '누구나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스님들의 전통 식단을 바탕으로 범어사만의 사찰음식을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영리 수석연구원은 "범어사에는 오랫동안 구전된 전통 음식이 많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스님들이 드시던 음식을 기록하고 레시피로 만들어 범어사 고유의 음식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연구소의 첫 번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향후 계획으로 선문화교육관 앞 부지에 사찰음식체험관 전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체험관은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 확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독립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독립 공간은 '불교 수행·생명문화·지역사회 실천'을 아우르는 전방위 사찰음식 플랫폼으로 자리할 계획이다.

정오 스님은 "사찰음식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수행의 연장선"이라며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삶에 치유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전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사찰음식이 살아있는 불교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51-508-0102

쿠무다 로터스봉사단, 어르신 만발공양

6월 5일 300명에 건강식
지역 사회 나눔 실천 행보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 부설 로터스봉사단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만발공양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로터스봉사단은 6월 5일 사무실 앞 그린레일웨이 솔그늘숲길에서 '송정동 어르신 무료 점심공양 초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로터스봉사단이 주최하고 대운사와 명경문화재단이 후원했으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정동 일대 어르신 300여 명이 초청돼 그늘막 아래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서 점심 공양이 진행됐다. 식사는 로터스봉사단 회원들이 3일간 직접 조리한 건강식으로 제공됐으며 생수와 떡, 세면도구 등이 함께 전달됐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비롯해 쿠무다 이사진과 봉사단 회원들이 행사 준비와 운영에 참여했으며,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손성애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송정동 부녀회 회원 등도 자원봉사자로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주석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자비의 실천이 이웃에게 온기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구청장은 "항상 지역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석 스님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지역복지의 의미를 다시 느꼈다. 구청도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로터스봉사단은 2023년 12월 19일 창단해 부산 송정동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창단을 기념해 김치 1500kg(500상자)을 지역에 전달하며 첫 보시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매월 두 차례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점심공양은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비정기 무료급식도 병행해 나눔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봉행

6월 6일 독성각 앞 잔디마당
순국선열 추모와 불법 홍포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경내 일원에서 '제35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와 제13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봉행했다.〈사진〉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주최하는 호국영령 천도의식으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를 이어 봉행하고 있다.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도 함께 봉행해 불교홍포 및 교육 사업에 앞장선 창건주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통도사 만초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채프먼 미 해군 목사와 미 해군 병사, 스튜어트 레이필드 클럼버스 주립대 총장과 학생들, 하도명화 보살 가족,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심산 스님은 봉행사에서 "호국바라밀재는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과 인종을 넘어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자리"라고 의미를 밝혔다.

채프먼 목사는 추모기도에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조국을 지켜낸 영혼들이 자비롭게 안식을 얻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스튜어트 레이필드 클럼버스 주립대 총장은 "콜롬버스 주립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이러한 유산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매일 느낀다. 특히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희생은 살아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평화와 협력의 미래를 이어갈 것"이라고 인사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 이어 오후에는 청소년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제13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유치부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석해 호국의 날 의미를 되새겼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2025년 6월 16일까지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우석 스님 "화엄사를 열린 문화공간으로"

화엄사 주지 취임법회 봉행

우석 스님, 미래 비전 발표

"공심으로 포교 매진할 것"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신임 주지 우석 스님이 6월 7일 봉행된 취임법회에서 향후 운영 비전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가 6월 7일 경내 화엄원에서 제23대 주지 우석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앞으로 화엄사가 나아갈 운영 방향과 포교 비전을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화엄사 말사 스님들과 신도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를 시민과 불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문화공간이자 수행의 도량으로 만들겠다"며 향후 운영 방향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밝혔다.

우석 스님은 취임사에서 "원력과 공심으로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겠다"며 "많은 이들이 화엄사에서 치유와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삶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발견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화엄사는 전임 덕문 스님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확장해 새로운 사찰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며 "문화유산 활용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 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무형문화유산과 전통 장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보제루와 성보박물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석 스님은 구체적으로 겨울철 '아웃도어 템플스테이'와 '문화유산의 날' 운영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해 명사 초청 강연과 전시, 시범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섬진강변을 따라 걷는 명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걷기 명상'과 같은 페스티벌도 구상 중"이라며 "사찰의 정적인 이미지에 활동적이고 치유적인 프로그램을 더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량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문에 앞서 우석 스님은 화엄사의 운영을 함께할 국장단 14인을 새롭게 임명했다. 총무 우범·교무 우견·재무 법문·기획 우승·포교 덕명·호법 연성·사회 연우·복지 우태·연수 성각·홍보 범정·교육 선타·도감 덕제·산감 우곡·원주 불덕 스님 등이다.

이어 신도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신임 신도회장에는 김수철 거사가 임명됐으며, 정재용 상임부회장과 문승옥·오인석·최호견·김완석·이현택·이철호 등이 부회장으로 함께 위촉됐다. 고문에는 이정곤, 감사에는 이은옥·이금숙, 수심회장 정상교, 불심회장 소재인, 청년회장 주형동, 선재거사림회 류창수, 포교사회 전은정, 만산회 양수영, 합창단 허현복, 선다회 이경진 등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날 우석 스님은 장길선 전 신도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향일암 보문복지회에 후원금을 전했다. 또한 영응사(주지 우문 스님)가 화엄사에 승가복지기금 등 30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의 뜻을 더했다.

우석 스님은 "화엄사의 전통성과 종교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복합 문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불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숨 쉬고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엄사를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백양사, 을사년 하안거 결제법회

6월 10일 대웅전서 봉행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6월 10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하안거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여름 안거 정진에 들어갔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수좌 일수 스님을 비롯해 주지 무공 스님, 고불선원·운문선원의 안거 대중과 소임자 스님, 신도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수행의 결의를 다졌다.

일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행하는 데는 그 마음을 진실히 써야 하며, 마음만 진실하면 도(道)는 친해지기 쉬운 법"이라며 "부처와 중생이 내 안에 있으니 다른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윤달로 인해 결제가 4개월 늦어져 더운 안거가 이어지는 만큼, 땀 흘리며 정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안거에는 고불선원과 운문선원에 23명의 납자가 방부를 들였으며, 외호대중을 포함해 총 70여 명이 백양사에서 안거에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울산 용화사, 전통사찰 지정

울산 12번째 전통사찰



울산 용화사〈사진〉가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사찰로 지정됨에 따라 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전통사찰은 역사성과 예술성, 전통문화를 계승한 사찰 가운데 보존가치가 높은 곳을 정부가 지정해 보호·관리하는 제도다.

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며, 조선 정조 1년인 1777년 통도사 재산 목록에 그 존재가 처음 기록됐다. 이후 여러 차례의 중창과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용화사의 지정·등록으로 울산시는 총 12개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선명상 강좌 개강… "수행 지도력 배양"

고창불교회관서 9일 첫 강의

마가 스님 6주간 명상 지도


선운사는 6월 9일 고창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선 자비명상 특별강좌' 첫 강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본말사 스님들을 위한 선명상 특강을 개강했다.

선운사는 6월 9일 고창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제24교구 소속 스님들을 위한 '선 자비명상 특별강좌' 첫 번째 강의를 개최했다.

교구 스님들의 명상 수행 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행 내실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35명의 스님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 선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타교구 스님들도 동참해 이번 강좌에 대한 스님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급격한 농어촌 인구 감소와 불자들의 노령화로 사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스님들의 고충을 듣고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며 "현대사회 스님들에게는 개인 수행뿐 아니라 신도와 사회를 아우르는 수행 지도력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강좌가 교구 스님들의 전법포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명상의 이해와 기본 강의에 이어 방송인 겸 가수 붓다라마 최진규 감독의 마음을 여는 시간에 이어 호흡명상, 알아차림 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의 기초 실습이 이뤄졌다.

선운사 선명상 특별강좌는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이자 자비명상 대표인 마가 스님이 맡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6주간 진행된다. 강좌는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구성됐으며, 자비명상을 중심으로 일상 속 수행의 적용 방안을 안내한다.

마가 스님은 "이번 특별강좌는 24교구 스님들의 명상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강좌는 단순한 명상 기법을 익히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고, 타인의 고통에 자비롭게 응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스님들이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자각과 자비의 호흡을 체험하시길 바라며, 그 울림이 도량과 신도, 나아가 이 사회로 따뜻하게 퍼져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응어리 풀기 명상과 치유 명상(6월 16일) △일상 속 명상 실습(6월 23일) △화소림 명상과 연기법(6월 30일) △맞춤형 명상과 마음돌보기(7월 7일) △스토리텔링 및 유아 명상 지도(7월 14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BBS, 신사옥 이전 기념 연주회

5월 28일 중구문화의전당서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이진용)이 5월 28일 울산 중구문화의전당 함월홀에서 신사옥 이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깨침의 소리, 울림의 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을 비롯해 지역 사부대중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BBS울산불교방송 합창단은 찬불가와 대중가요 등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선보이며 관객들과 신사옥 이전의 뜻을 함께 나누는 감동의 무대를 꾸렸다. 또 소프라노 이은선과 BBS울산불교방송 무용단, 해조음 밴드가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무대를 한층 풍성하게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삼론종, 2025 하계 수련회

6월 11~13일 보현정사서



삼론종(총무원장 남륜 스님)이 6월 11~13일 경북 경산 보현정사에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수련회는 종단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종도 간 신행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이번 수련회가 삼론종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련회는 △총무원장·종정예하 간담회 △3차 교육 강의 △토론회 △야간 기도와 독송 △차담 및 공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금당사·신우그룹 업무협약 체결

템플스테이 통해 정신문화 확산 기대



진안 금당사(회주 원행 스님)는 6월 8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신우그룹(대표 민인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템플스테이를 통한 불교문화 확산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사진〉

이날 업무협약에는 금당사 회주 원행 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주지 보연 스님, 총무 보의 스님, 성보박물관장 법은 스님, 효복지관장 탄하 스님과 신우그룹의 민인자 대표, 이광철 회장, 그룹 관계자 등 1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업무협약 내용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신문화유산의 확산을 목표로 △신우그룹 직원 금당사 템플스테이 참가비 30% 할인 △금당사 매장 내 신우그룹 제품 할인 적용 △상호 간의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원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우그룹의 이 회장, 민 대표께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공덕으로 두 분은 물론 신우그룹 가족들이 악업을 소멸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항상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불자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고 있다"며 "깨끗한 화장지처럼 모두가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나눔 실천도 함께 이뤄졌다. 민 대표와 이 회장은 진안 지역의 복지시설에 전달할 점보 롤 화장지 180상자(8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기부 물품은 진안군청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국 축제 '송끄란', 한국서 펼쳐지다

천안 붓다라마, 제2회 송끄란 축제 성료



태국의 설날 행사인 송끄란 축제가 한국에서 열렸다.

천안에 소재한 태국 사원 붓다라마(주지 찌라삭 스님)는 6월 8일 경내 일원에서 '제2회 송끄란 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주한 태국대사관(대사 타니 쌩랏)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태국 교민과 다문화가정, 한국 불자 및 지역 시민 등 2000여 명이 동참해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화합의 장을 펼쳤다.

'송끄란'은 태국의 전통 설날이자 불력(佛曆)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큰 불교 행사로 매년 양력 4월 13일을 기준으로 부처님께 정화수를 올리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한 해의 복과 평화를 기원한다.

특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 또한 같은 날을 새해로 지정해 유사한 불교의 례와 물의 축제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송끄란'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선 남방불교계의 공동 무형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4월 날씨가 쌀쌀해 물축제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매년 6월로 일정을 조정해 봉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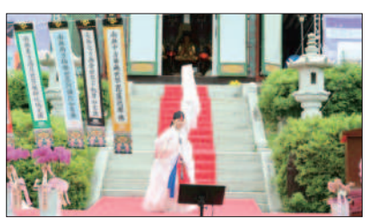
붓다라마 주지 찌라삭 스님은 "송끄란은 단지 물을 뿌리는 행사가 아니라, 서로에게 복을 나누고 마음을 정화하는 불교의 수행"이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한국과 태국 불자들이 자비와 화합을 함께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이루길 기원한다"라고 축원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가마에 부처님을 모시고 헌수 의식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장면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보명사, 군왕제·선지식 음악향연

6월 8일 경내 특별무대서



천안 보명사(주지 활암 스님)가 6월 8일 시민과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기 2569년 군왕제 및 53선지식 음악향연'을 개최했다.〈사진〉

보명사 경내 특별무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군왕제와 2부 음악향연으로 진행됐다. 군왕제는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의식을 집전했으며, 2부 음악향연은 가수 풍금·양지원·서동희·유난이·황아람, 악기연주자 심운, 묘광 스님의 무대가 펼쳐졌다.

주지 활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군왕제는 태조 왕건의 넋을 위로하고 70만 천안 시민과 불자들의 무병장수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 깊은 행사"라며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 불자들이 위로와 지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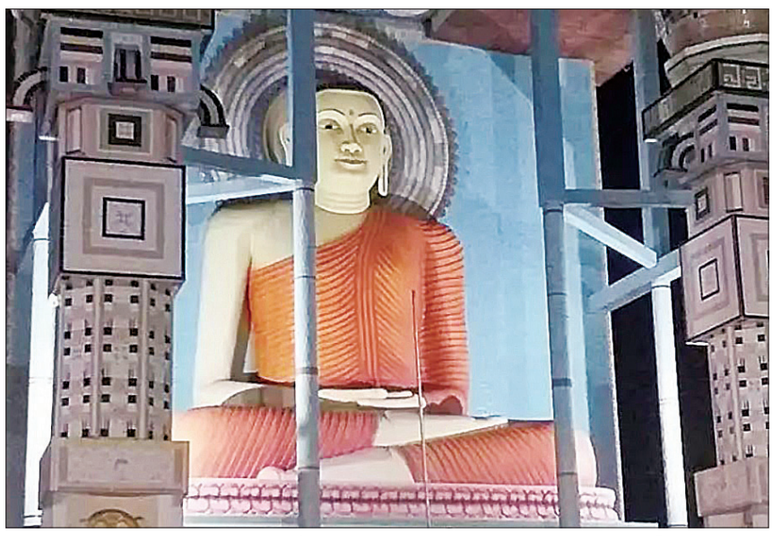
유재상 충청지사장

스리랑카 불교 "'포손 축제' 상업화 말라"

불교 전래 기념일

유흥 전락 의미 퇴색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포손 축제 기간중 길에 모셔진 불상. 사진출처=UCA 뉴스

남아시아 불교국가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의 탄생·성도·열반을 기리는 베삭 축제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불교축제인 '포손 축제'의 상업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CA 뉴스'는 6월 6일 현지 언론을 인용해 "스리랑카에 불교가 처음 전해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포손 축제'의 상업화를 지적이 스리랑카 불교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6월 4일 콜롬보에서 대중스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스리랑카 불교협회장 툼불레 실락칸다 스님은 "스리랑카 불자들에게 신성한 이날, 단순한 연례축제나 휴일이 아닌 종교적으로 중요한 기념일로 바르게 기념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들은 "전국 각지의 도시와 마을에서 열리는 포손 축제 주간 동안 길거리에서 진행 춤, 민속공연, 연극과 만담, 귀신의 집과 전시 등은 불교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강조하며 지역 불교계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조직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포손 축제는 스리랑카 달력으로 7월인 포손 달의 보름에 거행되며, 올해는 양력 6월 10일에 진행된다. 이 축제는 기원전 3세기 인도의 아쇼카 왕이 파견한 포교사인 마힌다 장로가 미힌탈레에서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야티사 왕을 만나 첫 설법을 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다. 전통적으로 스리랑카의 불자들은 축제 기간 사찰을 찾아 팔관재계를 받아 지니고 명상을 하거나 설법을 듣고 이웃들에게 무료로 음식이나 생필품을 보시하는 등의 신행생활을 한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신자 단체들도 스님들의 기자회견에 동의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불교학교 교사인 니리샤 출라니는 "포손 축제의 명물처럼 소개되는 귀신의 집 전시나 악마의 춤, 거리연극 등은 사실 불교의 내용을 좀 더 쉽게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체험 예술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점차 불교적 내용 보다는 유흥거리의 하나로 의미가 퇴색해 본래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가단체는 "자선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불교단체의 길거리 음식판매가 전문적인 노점상들과 혼동되고 있다. 전문 노점상들은 축제에서 내야하는 참가비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교기를 걸거나 부처님의 사진을 내거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곤 한다"며 정부의 명확한 지도와 관리를 촉구했다.

지난 2년 동안 스리랑카 정부는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고, 불교계는 스리랑카 정부의 재정 지원 제안을 거절하면서 불교계와 시민들이 축제 자금을 지원했다. UCA 뉴스는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축제 참가가 늘면서 갑작스런 상업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다시 정부가 포손 축제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리랑카 불교계는 "포손 축제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샤카디타,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 연다

6월 16~20일 말레이시아서



세계 여성불자모임 샤카디타가 개최하는 제19차 세계여성불교대회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다.

'전환기의 불교 여성, 변화를 모색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샤카디타 코리아를 비롯해 전 세계 여성 불자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세계의 명상, 논문 발표, 워크숍,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1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세계의 명상 지도자들이 각국의 다양한 명상법을 지도한다. 논문으로는 한국 참가자들의 △한국 간화선 명상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자의 역할 변화 △한국 '힙 불교' 변화 속 여성 재가불자들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 발표를 비롯해 △마음챙김의 네 가지 기초 △부탄 여성 수행자의 변화의 여정 △초기 불교의 여성 관념 △티베트 불교 여성의 리더십 진화 △태국의 여성과 불교 신성화 등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국제 샤카디타 조직의 중요성', '마음과 가슴 속에 자비의 꽃을 피우다', '마음챙김 글쓰기', '불교 영적 돌봄' 등을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된다.

매일 대회 시작 1시간 전에는 명상을, 저녁에는 염불을 하며 교감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19일에는 대회를 주관하는 쿠칭불교회의 문화·무용팀의 다채로운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붓다들의 딸'이라는 뜻을 가진 샤카디타는 1987년 설립됐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국 여성 불자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육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대만, 네팔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세계불교여성대회를 개최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수령 기자

달라이라마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 이룩하길"

6월 5일 당선 축하메시지

"양국 우호 강화" 기원도



달라이라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보냈다.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달라이라마 공식 사무국은 6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달라이라마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오늘날 세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상호의존성과 인류의 일체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티베트 불교 교류도 언급했다. 달라이라마는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에 재건된 티베트 불교의 전통 강원과 여러 교육시설에서 공부하는 한국불교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저 역시 성지순례를 위해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의 불교 법우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양국 불교의 우호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달라이라마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에도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며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원한다"면서 자신의 기도와 축원을 보낸다는 말로 축전을 끝맺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한국과의 교류에 오랫동안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에도 애도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달라이라마는 메시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참사 원인이 소상히 규명돼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서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하토야마 전 日총리, 태학사 마애불 친견

6월 7일 천안 태학사 참배

"평화로운 양국 미래 지향"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6월 7일 천안 태학사를 참배하고 삼태리 마애불을 친견했다. 사진 왼쪽부터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 오카다 코우오우 신한일우호회 일본 회장.

2015년 8월, 옛 서대문형무소 추모비 앞에 무릎 꿇고 과거사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대신이 6월 7일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를 참배하고 삼태리 마애불을 친견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 불교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신한일우호회(공동회장 인경 스님)가 개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천불사 대회 참석을 위해 방한했으며, 한일 관계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방한 일행 40여 명과 함께 태학사를 찾은 그는 간단한 예불을 올린 뒤 고려 불교 문화의 유산인 삼태리 마애불을 친견했다.

오카다 코우오우 신한일우호회 일본 측 회장은 "일본에서는 마애불을 '거울바위'라고 부른다. 우리 모두가 거울바위, 즉 태학사 마애불이 되어 평화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신한일우호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태학사 신도회는 이날 방문객들에게 삼태리 마애불 인근에서 재배된 쌀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한일 양국 간 신앙과 문화의 깊은 교류를 상징하는 뜻깊은 일이라는 평가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6월 7일 열린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사찰음식을 맛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등 내빈들이 선재 스님이 운영하는 부스를 방문해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찰음식 발전에 기여한 6명의 사찰음식 명장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린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 모습.


봉녕사의 밥알인절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절밥의 반전 매력…Z세대 사로잡은 '사찰음식 대축제'

문화사업단, 6월 7일 양재 aT센터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 개막식
8일까지 강연·체험 부스 등 다양
사전 등록자만 1만5000여 명 넘어
20 · 30대가 전체 56%로 관심 입증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사찰음식 전통의 맛과 멋, 현대적 감각까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 열렸다.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해 10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사찰음식 대축제'는 사찰음식의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보존·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6월 7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음식-한 그릇에 생명을 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찰음식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중이 직접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6월 8일까지 이어진 대축제는 △사찰음식 명장 스님의 강연과 토크콘서트 △18명의 사찰음식 장인 스님들의 특별전시 △사찰음식 특화사찰 8곳의 체험·시식 부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박람회로 운영돼 사찰음식에 담긴 생명 존중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등록자만 1만5000여 명에 달했고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6%(20대 20%, 30대 36%)를 차지해 사찰음식에 대한 젊은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중앙종회부의장 태효 스님과 종회의원 스님들,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사찰음식 명장 적문·계호·선재·정관·대안·우관 스님, 사찰음식 장인 1·2급 스님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이승현 조계사 총신도회장,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찰음식이 '생명을 존중하며 절제하는 삶' '탐욕을 줄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자연은 병들고 사람의 마음은 피로와 불안으로 지쳐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의 지혜, 생명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찰음식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며 "사찰음식은 우리 국민의 삶에 정서적·영적 안정과 건강한 식문화를 제안하는 귀한 자산이자, 자연친화적이고 절제된 식습관을 길러주는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이번 대축제가 사찰음식의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찰음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 기반의 국가음식문화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축제가 사찰음식의 본질과 철학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장이 되길 기대했다. 만당 스님은 "사찰음식은 오랜 세월 출가 수행자들의 일상 속에서 이어져 온 지혜와 자비의 산물로, 한 그릇의 음식에도 탐욕을 버리고, 생명을 공경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 정신이 오롯이 담겼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찰음식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미래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찰음식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피는 축사도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사찰음식은 음식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감사와 수행자로서의 절제가 근본"이라며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농부와 조리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연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경 스님은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사찰음식의 시대적 역할을 언급하며 "사찰음식을 통해 우리 국민과 세계인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삶이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문화 원형을 간직한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축하했다. 최 청장은 "사찰음식은 오늘날 전 인류가 직면해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로서 전 세계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제 사찰음식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그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알려지고 다음 세대에까지 면면히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은 '하나의 티끌에 온 세상이 담겨 있다'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을 인용하며 사찰음식 또한 씨앗이 자라고 수확되고 조리되며 섭취되고 소화되기까지 모든 인연이 녹아 있는 음식이라고 소개했다. 주 명예회장은 "앞으로 사찰음식이 '절밥'이라는 소박하고 수행적인 본질을 지켜가면서도, 음식 이름에 스님 이름을 넣어 스토리텔링을 더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사찰음식 발전과 전승에 기여한 6명의 사찰음식 명장 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관련해 심화 조사연구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한 정혜경 호서대 명예교수,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주호영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등 주요 내빈은 체험 부스 라운딩에 이어 캘리그래피에 낙관을 새기는 기념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사찰음식의 전통 계승과 국가무형유산 지정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찰음식은 자비의 마음 배우는 과정"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사찰음식 명장 강연서
'청정 · 유연 · 여법' 강조


계호 스님이 진관사의 562년 전통을 지닌 사찰음식 '두부찜(포증)'을 시연하고 있다.

"최고의 양념은 '마음'입니다. 자비와 지혜, 나눔과 베풂의 마음이 담길 때 음식은 비로소 건강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늘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행복아닐까요?"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이 6월 7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에서 사찰음식 명장 스님 릴레이 강연 첫 강사로 나섰다. 스님은 '사찰음식으로 배우는 지혜-청정·유연·여법'을 주제로 사찰음식 음식에 담긴 불교 정신과 사찰음식을 먹을 때 마음가짐 등을 차분히 풀어냈다.

계호 스님은 "사찰음식은 산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먹는 음식이자,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나눔과 베풂의 음식"이라며 "깨달음을 향한 수행식이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자연식이며, 텃밭에서 바로바로 가져오는 식재료로 만들어 건강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호 스님은 "요리학원이 많지만, 절에 와서 사찰음식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짚으며 사찰음식의 3가지 핵심 요소로 핵심 청정·유연·여법을 꼽았다. 청정은 재료뿐 아니라 몸과 마음이 맑아야 함을, 유연은 조리 과정에서의 여유를, 여법은 공양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한다.

계호 스님은 사찰음식 정신의 생활 속 실천 방법으로 '삼소 운동'을 제안했다. △적게 먹고 탐심을 내지 않는 소식(小食) △살생을 금하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는 소식(素食) △'맛다, 옳다, 좋다, 맛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미소(微笑)로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음미하는 자의 몫이고, 가피는 느껴지는 자의 몫이고,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먹고, 물을 잘 먹고, 공기를 잘 먹고, 음식을 잘 먹고, 나이를 잘 먹도록 노력합시다."

강연 후에는 진관사의 562년 전통을 지닌 사찰음식 '두부찜(포증)' 시연이 진행됐고, 참가자들에게는 시식의 기회가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사찰음식 명장 스님 6인의 릴레이 강의는 계호 스님을 시작으로 전국비구니회 사찰음식연구소장 선재 스님이 '1700년 사찰음식의 지혜, 발효'를, 산청 금수암 주지 대안 스님이 '사찰음식을 통해 바라본 음식의 환경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8일에는 평택 수도사 주지 적문 스님의 '사찰음식의 실상과 허상', 마하연 사찰음식문화원장 우관 스님의 '중도적 삶의 식문화', 백양사 천진암 감원 정관 스님의 '짱다리와 꺽다리의 아름다운 사찰음식 여행' 강연과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김내영 기자

순무김치·곰취쌈밥 만들기…첫날부터 '인기 만점'

연근지짐 만들기 등 체험 부스
3회 운영에도 정원 조기 마감
"큰 규모 다양한 콘텐츠" 기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 진행한 나물 다듬기 체험 모습.

10년 만에 열린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가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뤘다.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긴 줄이 이어졌고, 체험 부스와 전시 코너에도 인파가 몰렸다.

특히 사찰음식 특화사찰 8곳(금수암, 동화사, 백양사, 법룡사, 봉녕사, 수도사, 영선사, 진관사)과 사찰음식 활동이 활발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3곳(광제사, 능가사, 전등사)이 마련한 체험·시식 프로그램은 개장과 동시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체험은 하루 3회 운영됐지만, 정원 조기 마감으로 아쉬움을 표하는 관람객도 많았다.

각 부스에서는 오이땅콩탑, 오이고추참외무침, 발효고추장 감말랭이 버무림, 좁쌀알타리김치, 연근지짐, 밥알인절미, 곰취쌈밥, 녹두월병 등 다양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등사 '순무김치 담그기' 체험에 참여한 전지현 씨(46)는 "젓갈을 넣고 만든 맛이 강한 김치를 일반적으로 접해 왔는데, 젓갈 없이도 깊은 맛이 나는 김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건강한 단맛 덕분에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축제 소식을 알려주는 뉴스레터를 통해 이곳을 찾았다는 최진선 씨(30)는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으로 '유자약밥'을 꼽았다. 최 씨는 "유자청은 시중에서 달기만 한데, 이곳 유자 약밥은 향긋함이 오래 입안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사람이 많은 데 비해 체험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라 아쉬웠다"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홍보 책자가 좀 더 비치되고, 보다 큰 규모에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 진행한 나물 다듬기, 차명상 등 체험도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회차마다 20명으로 제한된 현장 접수는 빠르게 마감됐고, 하경 스님이 지도한 고춧잎 다듬기 시간에는 접수하지 못한 이들이 곁에서 몰래 청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스님은 그런 이들에게 고춧잎을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사찰음식 장인 스님들의 특별전시도 눈길을 끌었다. '수행에 깨달음을 준 음식'을 주제로 한 전시품들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수행의 의미를 담아냈다. 정과 3종(금귤, 도라지, 호두)을 전시한 성화 스님은 "정과는 정성으로 끓이고 식히고 반복한 후 천천히 오랜 시간 말려야 완성되는 음식"이라며 "정과가 단시간에 만들어질 수 없듯, 수행도 시간을 갖고 묵묵히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한다. 정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지나온 수행을 되돌아보고, 늘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1~6/1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정관스님 나의 음식	정관, 후남셀만	월북
3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4	아침을 담은 죽	법송	도서출판 자자
5	사찰 음식 이야기	묵신	백산
6	매일매일 채식밥상	홍승	담앤북스
7	뿌리를 담은 밥상	법송	도서출판 자자
8	샐러드가 필요한 모든 순간 내만의 드레싱이 빛나는 순간	지은경	레시피팩토리
9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10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	문일수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한 화엄경:시공을 너머핀 꽃	정엄 지음	리즈앤북
2	담마빠다(법구경)빠알리어직역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3	금강경역해:금강경산스끄리뜨원전 분석 및 주해	각묵	불광출판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6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여래장사상의 원전(학술총서77) 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8	틱낫한 행복	틱낫한	불광출판사
9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10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연기를 연기하다

〈緣起〉 〈演技〉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재용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배우 이재용의 인생 수행 에세이

방황하던 시절 만난 스승 인연

'존재의 와해' 겪고 불교 공부

"마음 깨닫는 수행은 '셀프 구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배우 이재용? 이름만 들으면 갸우뚱하겠지만 얼굴을 보면 단박에 알아챌 사람. 40년 넘게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가, 한때 출가를 권유받기도 한 '불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에세이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를 펴낸 배우 이재용 씨는 6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놓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사진〉

불교와의 첫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무 살부터 연극에 빠져들었으나 세상살이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실의와 낙담과 폭음으로 방황하던 그에게 한 선배가 조용한 암자를 소개했다. 스님과 단둘이 지내게 된 두 칸짜리 암자에서 그는 직접 장작을 패고 불을 때고 밥을 해 먹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어느 날, 한껏 낮은 자세로 밥상을 들고 가다 서까래에 머리를 들이받은 그에게 스님은 단호하게 소리쳤다. "아직 멀었다. 더 숙여라!" 그 순간 번뜩 깨달음이 왔다. "'존재의 와해'라 불러도 좋을 경험"이었다.

"그동안의 제 삶이 번갯불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군요.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붓다를 본 날이요."

그때 스님에게 '적정(寂靜)'이란 법명을 받고 지금껏 불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참선, 위파사나, 만트라 명상 등을 두루 경험하며 "수행법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을 깊이 체감했다고 말한다.

그간 일본인 순사(SBS 드라마 '야인시대')나 조직 폭력배(영화 '친구') 같은 악역을 다수 맡다 보니, 배역에 깊이 몰입했다 빠져나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 그는 "인물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분노와 슬픔, 억울함 같은 여러 감정에 공감하는 시점이 온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대상화하면, 몰입 과정에서의 착각과 혼란이 하나의 '현상'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현실과 배역 사이의 혼란, 대중적 인기의 쇠락,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다른 배우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다.

"많은 배우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심지어 알코올 중독을 겪지만, 모두가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절한 현실도 못 됩니다. 그렇다면 '셀프 구원'이 답입니다. 인기나 부, 명예 같은 부질없는 것들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는다면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남은 생은 좀 더 명료하게 살면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갚을 수 있는 여생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비빔 불교'와 '달임 불교'



한국불교사참구

고영섭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4만원

〈연구〉〈탐구〉〈궁구〉 이은 4부작

"불교사 화두 삼아 참선하듯 참구"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후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의 토양과 기후, 언어와 문화, 사유와 인식 속에서 불교를 발효하고 숙성해 '한국불교'를 형성했다. 이러한 한국불교는 곧 한국사 1700년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

한국불교사학회장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한국불교는 인도의 소승·대승·금강승 불교와 중국의 13종파를 받아들여 물리적으로 종합한 후 '비빔의 불교'를 열었고, 화학적으로 삼투시켜 '달임의 불교'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인식틀로 삼아 왔다"고 평가한다.

고영섭 교수가 최근 펴낸 〈한국불교사참구〉는 전작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사탐구〉, 〈한국불교사궁구〉에서 이어지는 4부작의 대단원이다. 한국사와 한국불교사를 관통하는 인물, 역사와 문화, 사상과 학파를 아우른 책으로, 제목은 "한국불교사를 화두로 삼아 참선하듯 참구해 펴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은 저자의 한국사 시대구분법에 따라 사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시대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사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가야 불교'는 고대불교의 전래와 수용, 공인의 과정을 거쳐 토착화, 구심화되는 과정을 살핀다.

2부 '남북국시대-통일신라 대발해 불교'에서는 원측·원효·의상 스님의 불교사상을 조명한다.

3부에서는 고려시대 전·후기 불교를 △김제 모악산 귀신사의 역사와 인물 △〈삼국유사〉의 원효와 의상 등을, 4부에서는 조선시대 전·후기 불교를 △조선 세조의 오대산 상원과 중창과 거둥 관련 유적 등을 주제로 개괄한다.

5부에 '대한시대'에서는 근현대 선지식인 경허·한암·문성·청담·구산 스님을 키워드로 근현대 불교사를 살핀다.

새로 나온 시집

죽음의 그림자에 내린 언어의 닻



숲속의 대성당

남진우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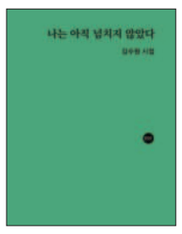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

1만2000원

"새가/어느새 한 마리 새로 피어난 새가/가볍게 날개를 펼치고 허공 위로 떠오른다/아무리 접어도 접히지 않는 새가 빛 속으로 멀어져 간다." -'새를 접다' 중에서

시인이자 평론가인 남진우의 일곱 번째 시집이다. 첫 시집에서 "오직 죽은 자만이 성스럽다"고 고백한 바 있는 시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떠올리며 "그가 설한 연기와 무아의 진리에 관한 위대한 말씀들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죽음에 임해 투철하게 육체적 괴로움을 겪어낸 그 장면의 진실성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종교를 넘나들며 천착해 온 '죽음'의 여정이 이번 시집에선 '생'의 의지로 전환된다.

존재의 경계에 있는 사물들에게



나는 아직 넘치지 않았다

김수원 시집

불교문예

1만2000원

"거울 밖에 비가 오면 거울 속에도 비가 온다 / 거울 속에 버린 시가 궁금해서 / 내가 우산을 쓰고 거울 앞으로 다가가면 // 거울 속에서 우산만 걸어간다." -'볼록 거울 속의 시' 중에서

김수원 시인의 신작 〈나는 아직 넘치지 않았다〉는 존재의 경계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날 선 감각을 보여준다. 문학평론가 고명수 시인은 "김수원의 시는 인간의 숙명적 한계와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고 그 현실을 견디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시인은 2017년 〈불교문예〉, 2019년 〈한국시조문학〉으로 등단해 현재 〈계간문예〉 이사를 맡고 있다.

작은 것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나팔고둥 좌표

김시림 시집

도서출판 상상인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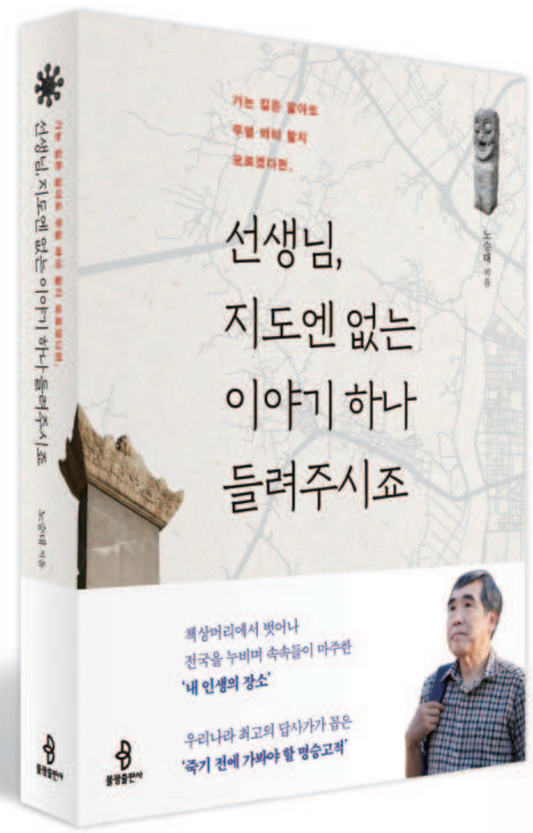
애써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시가 있다. 시적 대상이 크지 않은 물상들, 생명들일 때 더욱 그러하다.

김시림 시인은 "작은 수족관" 속 "며칠 전 눈대중으로 좌표를 찍어 둔 자리보다 한 뼘쯤 옮겨 앉은 저 나팔고둥"에 시선을 두고, "본래 이 터의 관계자들"인 "강아지풀 나팔꽃 개망초 쇠비름"에 귀를 기울인다. 문학평론가 방민호 교수(서울대 국문과)는 "김시림 시인의 시들을 읽으며 교섭과 교감의 보람,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평한다.

시인은 1991년 〈한국문학예술〉, 2019년 〈불교문예〉로 등단해 현재 〈불교문예〉 편집장을 맡고 있다.

가는 길은 알아도
무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지음

520쪽 | 올컬러 | 32,000원

우리나라 최고의 답사가가 꼽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승고적'

"길을 걷다 멈춘 곳에 이야기가 있다"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전국을 누비며 마주한 '내 인생의 장소'

청룡열차보다 흥미진진하고, 유명 관광지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길 위의 박물관, 우리 땅 인문 여행 첫걸음!





노승대 | 1975년 입산해 광덕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0년 뒤 하산했으나 그 길에서 찾았던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은 내려놓지 않았다. "책상머리에서 글 쓰지 마라." 하신 스승 조자용 관장님(에밀레박물관)의 당부에 따라 42년간 전국의 유적지를 직접 마주한 저자는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금생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길 위에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조선 전기 불교미술 정수, 한자리서 만난다

국립중앙博, '조선 전기 미술 대전'
6월 10일~8월 31일 특별전시실서
지장보살도 등 불교유산 94건 선봬
'무장애' 반영 전시 콘텐츠 '눈길'

배희정 객원기자 hbpress@hyunbul.com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지장시왕도(스오코쿠분지). 화기에 시주 물품과 시주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 16세기 민간서 조성한 도상의 특징이 보이고 있다.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조선 전기 불교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15~16세기에 조성된 조선 전기의 미술품이 한 자리에 모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다. 특히 총 94건의 불교문화유산들이 소개되는 특별전은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불교미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여서 주목할 만하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개관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건국 200년 동안 제작된 국내외 72개 기관 소장품 691건이 한 자리에 선보인다. 조선 전기 미술의 주요 흐름을 집중 조명한 전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보 16건, 보물 63건은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5개국 24개 기관에서 40건이 출품되며, 이 가운데 23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전시는 흰색, 먹색, 금색 등 세 가지 색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프롤로그 '조선의 새벽, 새로운 나라로' △1부 '백(白), 조선의 꿈을 빚다 △2부 '묵(墨), 인문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3부 '금(金), 변치 않는 기도를 담다' △에필로그 '조선의 빛, 훈민정음' 순이다.

불교문화유산 가운데는 보물로 지정된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조선 15세기, 높이 100.6cm)이 1938년 영암 도갑사에서 옮겨진 이래 처음으로 법당을 떠나 전시돼 주목된다. 15세기 조선에 새롭게 들어온 명 티베트계 불교미술 양식이 돋보이는 불상으로, 균형 잡힌 신체와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옷 주름이 뛰어난 조각 수준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는다. 15세기 후반 왕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건너온 지장시왕도와 삼장보살도 등 2점은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으로 이목을 끈다. 지장시왕도(일본 스오코쿠분지, 1586년)는 삼베 바탕에 지장보살과 열 명의 왕이 화사하게 그려진 196.1×175.8cm 크기의 불화다.

삼장보살도(일본 신쵸코쿠지, 1550년)는 일본 내에서도 전시된 적 없던 작품으로 현재 완전하게 남아 있는 조선 전기의 삼장보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왕실 후원으로 제작된 조선 전기 불상과 불화에서부터 불교서적 등 다양한 불교유산을 만날 수 있다.

'배리어프리(무장애)' 트랜드에 맞춰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들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별전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쉬운 설명 패널이 전시실에 비치되고, 어린이용 오디오가이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시품을 활용한 활동지와 조선 전기 추구미 아이템을 찾는 활동도 전시실에서 즐길 수 있다.

대표 작품 32점을 감상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해설이 한국어와 영어, 한국수어와 음성해설로 제공돼 청력이나 시력에 어려움이 있는 관람객도 전시 내용을 쉽게 즐길 수 있다. 전시실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특별전 모바일 리플릿 사이트(www.새나라새미술.com)에서 만날 수 있다.

오대산서 '미래세대와 불교' 토론회 열린다

6월 24~26일 월정사 일원서
교불련 '2025 교수불자대회'
정념 스님, 윤재웅 총장 강연
기후위기, AI, 전법 등 논의

기후위기부터 인공지능(AI), 전법·포교론까지. 미래세대를 위해 한국불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공동으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월정사 일원에서 '2025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한국불교의 준비와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교수불자대회는 한국불교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미래세대와 불교, 그리고 대승보살의 길'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또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대회 첫날 참가자들과 차담을 겸해 '한암·탄허·만화 스님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마지막 날인 26일 '전통의 지혜와 현대적 자비, 그리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법문을 할 예정이다.

6월 25일에는 '대학생·청년 전법 특별 세션'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 불광산사 주지 혜호 스님을 초청해 '대만불교의 청년 전법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다. 강연 뒤에는 유주연 대불련 회장, 이수연 대불련 숙명여대 지회장 등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청년 전법의 현실과 과제를 대학생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3일 간의 대회에서는 웰다잉, 생명윤리, AI, 생태명상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10편이 발표된다. 주요 발표 논문으로는 △불교 관점에서 본 웰빙과 웰다잉(장상목·동아대) △행복(열반)을 향한 붓다의 길을 걷는 방안(이수룡·국제포교원)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덕성과 함양에 관한 일고찰(김미자·금오공대) △양자과학 기술과 AI 시대, 그리고 불교와의 관계(김성규·영남대) △분별적 지능에서 직관적 깨달음으로: AI시대의 참선수행(김경회·대구대) △AI가 미치는 미래세대(원혜영·백성욱연구소) △불교 생명사상과 형법(이규호·유원대) △효령대군 유불동원 수기법의 사회적 활용(이종수·중앙대) △명상에 의한 현실창조에 관하여(김선숙·동덕여대) △대학생 전법의 성과와 기대(심혜인·영산대) 등이다.

신중일 기자

"수행, 사회참여는 不二"…인간불교서 배우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학술대회
6월 8일 통도사 반야암서 열려
대만 4대종문 실천 사례 조명
티베트 불교 세계화 과정 분석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6월 8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시대적 요구에 호응한 불교는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비로소 실천이 되고, 사회참여는 수행이 될 수 있다."

이병욱 보조사상연구원장은 6월 8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열린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 학술대회에서 대만불교의 대표적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원장은 "불교는 고요한 성찰과 구체적 실천이 함께하는 종교"라며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대만의 4대 종문(불광산사, 자제공덕회, 중대선사, 법고산사)의 활동을 설명하며, 이들 모두가 '현실과 호흡하는 인간불교'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아침명상록'을 중심으로 자제공덕회를 창립한 증엄 스님의 사상에 주목했다. 이 원장은 인간불교의 핵심 요소로 △본분을 다하는 삶 △지혜에 기반한 자비 △사회참여와 고요한 성찰(靜觀)의 통합 △투명하고 자율적인 조직 운영을 꼽았다.

이 원장은 "대만의 인간불교는 태허의 인생불교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삶 속에서 수행하고 사회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은 한국불교에도 유효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티베트, 일본 등 해외 불교의 현대적 실천 사례를 분석하는 논문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은정 나란다불교학술원 원장은 티베트불교의 세계화 사례를 조명하며, 전통과 혁신의 창조적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한국불교 역시 과거의 지혜를 현재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과제로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불교 전통 간 비교 △세대별 수용 태도 분석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제안했다.

송재근 창원대 교수는 일본 정토진종 교단의 발전과 과제를 소개하며, 현대 일본 사회에서 종교가 겪는 위기를 짚었다. 그는 '사토리 세대'와 'Z세대'를 예로 들며 "이들은 개인 중심의 삶을 중시하고, 가족이나 교단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본연문도회, 제10회 '불화이야기'展

6월 29일까지 대구문화회관 · 경북불교대학서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성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불교미술 본연문도회(회장 조해종)는 제10회 '불화이야기'展을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3전시실에서, 이어 6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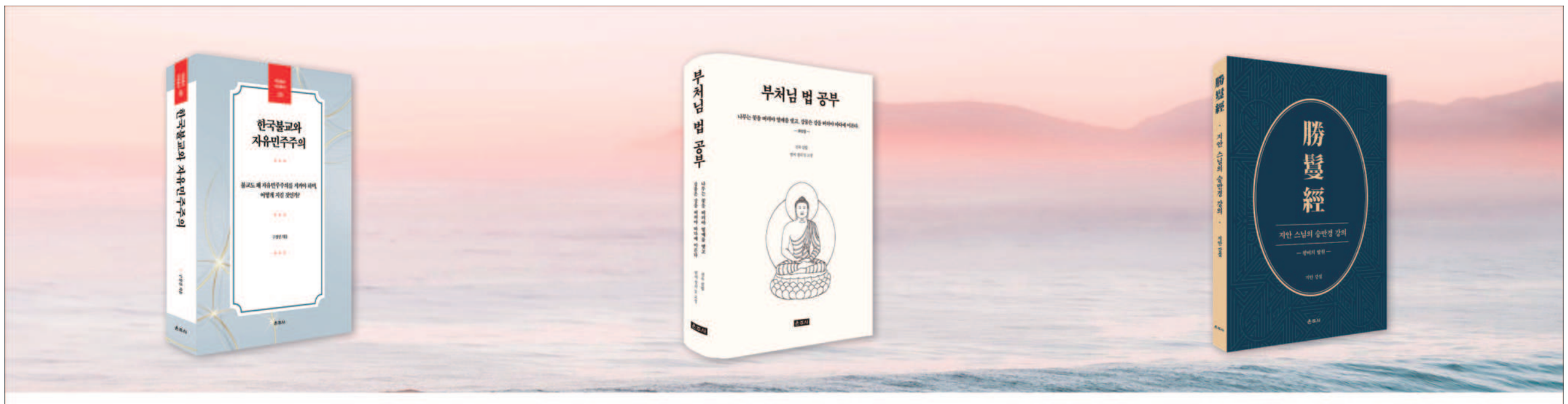
'불화이야기'展은 불화와 단청의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을 통해, 불교미술의 계승과 대중화를 도모해 온 전시회로, 이번 전시에는 단청장 본연 전연호 선생을 비롯한 문하생과 일반 회원 28명의 총 60여 점이 선보인다.

전시작으로는 전연호 선생의 화엄경 제5권 변상도, 조해종 회장의 관세음보살, 최병훈 작가의 수월관음도, 이문희 작가의 보조국사 지눌 진영, 지용 스님의 문수보살, 도무 스님의 관세음보살도 등이 포함되며, 고전 불화뿐 아니라 단청, 민화, 현대적 해석을 가미한 작품들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다.



조해종 작가의 '관세음보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캄보디아 '희망 배움터'서 미래를 꿈꾸다

로터스월드, 6월 11일 리엡짜 진성초 도서관 기증식

- 진성 스님 후원으로 마련돼
- 교실 3동 등 4년 지속 지원
- 동화책 · 간식 · 학용품 선물도
- 성관 스님 "인재로 성장하길"
- 진성 스님 "전기 지원" 요청

캄보디아 시엠립=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성관 스님과 진성 스님이 새로 마련된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읽을 책을 살펴보고 있다.



6월 11일 캄보디아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열린 '꿈과 희망의 도서관 기증식'에서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과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님들이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간식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리엡짜 초등학교의 교명이 '리엡짜 진성 초등학교'로 변경됐다.

2022년, 교실 두 칸으로 시작된 진성 스님의 지원은 3년 만에 전 학년 교실을 갖춘 학교로 거듭났고, 올해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과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교무실까지 갖추게 됐다. 이곳은 이제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오롯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육 공간이 됐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6월 11일 캄보디아 시엠립 외곽의 리엡짜 초등학교에서 '꿈과 희망의 도서관 기증식'을 개최했다. 아침부터 내린 비로 흙길은 질퍽했지만,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1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스님들을 아이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기증식에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과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 용인 장경사 주지 정휴 스님과 총무 혜타 스님을 비롯해 앙 삼반(Eng Samban) 시엠립 앙코르톰 구 군수, 스레이 욘(Srey Yorn) 시엠립주 앙코톰구 교육청장, 반 사벳(Von Savet) 리엡짜 초 교장,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했다.

이번에 문을 연 도서관과 교무실은 진성 스님의 후원으로 조성됐다. 진성 스님이 리엡짜 초등학교를 지원한 건 2022년부터. 당시 부족한 교실과 노후화된 시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의 사연을 접한 스님은 첫해에 교실 2칸 규모의 교육관을 지었고, 이듬해에는 교실 1동과 놀이시설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럼에도 고학년 학생들은 여전히 낡은 건물에서 수업해야 했기에 스님은 지난해 세 번째 교육관을 완공, 전 학년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교육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자 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 100여 명이던 재학생은 현재 181명까지 증가했다. 이에 진성 스님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도서관 건립을 결심했고, 올해 4월 착공해 두 달 만인 6월 11일 완공했다.

이날 스님의 뜻깊은 후원에 공감한 북한산 영취사가 도서관에 비치할 어린이용 동화책을, 도반인 장경사가 간식과 학용품을 선물했다. 특히 교명도 '리엡짜 진성 초등학교'로 변경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같은 진성 스님의 지원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스님은 2차 지원 당시 시엠립 교육부 측에 학교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 개선을 요청했고, 최근 도로포장이 완료되면서 공사 장비 유입이 쉬워졌고 주민 생활 편의도 높아졌다.

진성 스님은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준 로터스월드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캄보디아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진성 스님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시골에서 차도 없이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 공간은 그 어떤 고층 건물보다도 값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없는 전생과 금생을 거쳐 어머니, 아버지, 형제였을 수 있는 인연들이 모여 오늘의 거룩한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인연의 소중함을 전했다.

또 성관 스님은 어려운 환경을 딛고 꿈을 이룬 이재명 대통령의 일화를 들려주며 "이곳 리엡짜 초등학교 학생들도 언젠가 세상의 빛이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스님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아이들은 힘찬 목소리로 "할 수 있다!"고 외쳤다.

캄보디아 지역 인사들도 한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앙 삼반 앙코르톰구 군수는 "앙코르톰 지역의 공무원과 마을 주민, 학생들을 대표해, 이 지역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로터스월드와 진성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새로 지어진 도서관과 교무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좋은 아이, 좋은 학생, 그리고 좋은 친구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 사벳 교장도 "진성 스님의 꾸준한 후원 덕분에 열악했던 우리 학교가 이제는 세 개의 교사동, 여섯 개의 교실, 놀이시설과 도서관까지 갖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으로 탈바꿈했다"며 "지금까지 지원해 주신 모든 시설과 물품들을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소중히 사용하며 오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들을 대표해 4학년에 재학 중인 찌아스 꼬랍 학생은 감사 편지를 낭독했다. "진성 스님 덕분에 지난 4년간 우리학교는 활기차졌으며 학교에 올 때마다 더 많은 설렘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번 지원해 준 도서관에서도 친구들과 책을 읽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랫동안 저희의 성장과 행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학교를 잘 관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멋진 학생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도서관·교무실 준공을 기념한 테이프 커팅과 제막식, 기증 증서 전달식, 도서관 내부 점검 순으로 마무리됐다. 도서관을 둘러본 진성 스님은 교장에게 향후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 물었고, 교장은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을 계획하고 있지만 교실이 부족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진성 스님은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내보겠다. 대신 정부에서도 학교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길 기원한다"고 요청하며 내년을 기약했다.

"느리지만 꾸준히 교육불사 이어갈 것"

인터뷰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


បឋមសិក្សា លៀបចាស់ ឈឺនសង់
លៀបចាស់ ឈឺនសង់
រៀបរាប់ ជាមួយ
លោកគ្រូ ជាមួយ
លោកគ្រូ
លោកគ្រូ
លោកគ្រូ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3 마음의 업 바꾸려면



▶한줄 요약
보시를 통해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정화하면 고락의 업이 서서히 작아질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번뇌도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苦樂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편안해진다

業은 괴로움 · 즐거움 감정 의미
고락, 상호적이어서 선택 불가
행복 집착할수록 괴로움 커져
고락의 업 잔잔해야 행복해져
보시와 기도, 업 줄이기 첫걸음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여우 굴을 피하면 호랑이 굴을 만난다 하듯이
자리를 피한다고 사정이 달라지지 않거늘
고락(苦樂)의 업(業)에 따라 인연 지어지는 것이니
마음의 업(業)을 바꾸어야 범의 굴을 피할 수 있으리.

업(業)이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고락(苦樂)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고락이란 괴로움과 즐거움을 뜻하는데 이 둘은 항상 서로 상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과(因果)의 법칙입니다. 마치 태어남이 있다면 반드시 늙음과 죽음이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고락의 법칙은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남녀노소(男女老少), 지위고하(地位高下), 동서고금(東西古今), 빈부격차(貧富格差)를 막론하고, 고락은 누구에게나 업(業)으로 작용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것처럼, 고락의 업이 있는 한 어느 곳에서도 그 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란 고락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 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 세 가지 감정의 움직임을 '고락사(苦樂捨)'라고 합니다.

고락의 업이 작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비록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지닙니다. 반면, 고락의 업이 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여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리를 바꾸려 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바꾸거나 옮겨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그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은 인연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락의 양, 즉 업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당을 찾아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당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의 때에 명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합격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고락의 업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고통도 함께 커집니다.

소욕지족(少慾知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을 작게 하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형적인 부와 권력,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락의 업이 잔잔하고 출렁이지 않는 마음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부류는 부자도 권력자도 아닌 종교인입니다. 특히 불교의 고승들은 욕심을 버리고 고락의 업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편안함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락의 업을 바꾸고자 한다면 절대적인 '신심(信心)'이 필요합니다. 인과(因果), 공(空), 업(業)의 이치를 믿어야 합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나의 업 또한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심을 바탕으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첫걸음은 보시와 기도입니다. 보시는 조건 없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며, 기도는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보시를 통해 나의 욕심을 덜어내고,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정화하면 고락의 업이 서서히 작아질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번뇌도 줄어들고, 번뇌가 줄어들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마음의 고요를 되찾고, 나의 업을 성찰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락에 얽매이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마음을 가꾸어 나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봄은 메마름 속에 돋아남을 품었고
여름의 무더위는 무성(茂盛)함을 돕는다.
가을은 시듦 속에서 열매를 맺고
겨울의 삭풍(朔風)은 봄기운을 머금는다.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고 어찌 새벽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상반된 서로를 의지하여 생사(生死)와 고락(苦樂)을 이루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완성합니다.

새싹이 트자마자 열매를 맺는 법은 없습니다. 겨울의 삭풍을 지나야 돋아나는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기쁨의 씨앗이 되고 기쁨이 고통의 열매가 되는 것도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림을 참지 못합니다. 늘 조급한 마음과 불안함으로 편치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겨울을 견디지 않고 봄을 재촉하려는 것처럼, 기쁨만을 원하면서 고통은 멀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낀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간다고 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태풍이 분다고 바닷물이 줄거나 보태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래 득실(得失)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착각하며, 잃었다고 불안해하거나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결국 이런 착각이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밀물의 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의 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나가는 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보태지거나 줄어들지 않듯, 우리의 삶도 때로는 얻고 때로는 잃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인연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영원히 내 것이 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얻고 잃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얻는다고 기뻐하고 잃는다고 슬퍼하며 일희일비(一喜一悲)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기복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겨울의 삭풍 속에 이미 봄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통이 기쁨으로 이어지고 기쁨이 고통으로 이어지며 모든 것은 순환하는 법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이 괴롭더라도 그것은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선멈춤 선명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어 현재의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얽힌 마음을 풀고 초연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도 또한 얻고 잃음에 초연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불안과 집착을 녹이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루, 겨울의 삭풍 속에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려 보십시오. 얻고 잃음의 반복 속에서도 본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득실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⑪ 류근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한줄 요약
시인은 아픈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성찰을 한 것 같다. 마음에서 그녀를 보내 주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집착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한 교계 신문에 '가요, 불교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2년 동안 연재했다. 대중가요 속에서 불교적 의미를 찾아 소개하고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문학의 근본 물음을 오늘의 시선에서 성찰하는 내용이었다. 소재만 다를 뿐 지금 쓰고 있는 '시, 불교를 만나다'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닌 글이다. 당시 류근 시인이 쓰고 김광석이 곡을 만들어 노래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을 쓰다가 그만둔 적이 있다. 얼마 전 KBS '아침마당'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전국 스님 노래자랑을 열었는데, 수안 스님이 이 노래를 불러 우승하는 장면을 보고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뿌옇던 마음속 안개가 어느 정도 걷혔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래전 내가 사는 시골 동네에 작은 라이브 카페가 있었다. 손님에게 신청곡을 받아 노래를 들려주는 곳이었다. 언젠가 이 노래를 신청했더니, 가수의 말이 1년에 한 번 정도 부르는 곡이라고 한다. 널리 알려진 곡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후의 명곡'을 비롯한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김광석뿐만 아니라 가사를 쓴 류근 시인 또한 주목받게 되었다. 도대체 시인은 무슨 이유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까?

'글 써 먹고사는 괜찮은 사람'

노래를 부른 김광석이 어느 게시판에서 류근 시인을 두고 한 말이다. 가수의 지적처럼 시인은 대학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노랫말을 수십 편씩 썼다고 한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역시 그때 쓴 작품이다. 그러니 글 써 먹고사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빈말은 아닌 셈이다. 그래도 방점은 역시 가수의 눈에 비친 '괜찮은 사람'에 있다고 할 것이다.

류근 시인은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게 된다. 하지만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두고 휴대전화 벨 소리 다운로드 회사를 차리는 등 시인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 모든 것을 정리한 그는 2010년 첫 시집인 〈상처적 체질〉을 출간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 시집은 지금까지 스테디셀러로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후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진지하면 반칙이다〉 등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자신의 시에 대해 '삼류 통속 트로트 연애 시'라고 평가한다. 엄숙함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지붕 낮은 연애 시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시는 삼류가 아니다. 문장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시인의 지적처럼 세상이 항상 엄숙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통속적인 감성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요즘 시인은 어느 유튜브 방송의 'The 살롱'이라는 코너에 출연해 여러 시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덕분에 시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이 조금은 맑아지는 것 같다.

시인을 유명하게 만든 이 시는 정작 그의 시집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상처적 체질〉에 '너무 아픈 사랑'이란 작품이 실려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유행가 가사, 먼 전생에 내가 쓴 유서였다는 걸 너는 모른다."

시인의 사랑이 참으로 아프긴 아팠던 것 같다. 그 유행가를 김광석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 배우 박상원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부른다. 그가 살아있을 때 부른 마지막 노래인 것이다. 영화 '클래식'의 OST로 삽입되어 주인공의 가슴 아픈 사랑을 지켜보는 관중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그대 보내고 멀리 / 가을 새와 작별하듯 / 그대 떠나보내고 /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 눈물 나누나 / 그대 보내고 아주 / 지는 별빛 바라볼 때 / 눈에 흘러내리는 /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 지울 수 있을까 /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 흩날리는 거리에서 / 쓸쓸한 사랑 되어 고개 숙이면 / 그대 목소리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 스치며 지나가고 /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 그대 미워져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 세상에 오지 말기 / 그립던 말들도 묻어 버리기 / 못다 한 사랑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광석 곡 리메이크로 대중 관심 커져
'지붕 낮은 연애 시인'으로 사랑 노래
마음·현실 간극 집착 고통으로 이어져
집착 아닌 진실한 사랑은 현재에 집중

사랑일까, 집착일까?

누군가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별다른 망설임 없이 '집착'이라 말하고 싶다. 흔히 불교를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원인이 바로 집착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실천 체계인 사성제(四聖諦) 역시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가르침이다. 사성제는 삶을 고통이라 진단하는 고성제(苦聖諦)와 그 원인을 밝힌 집성제(集聖諦), 괴로움이 소멸한 멸성제(滅聖諦),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 위한 길을 제시한 도성제(道聖諦)로 이루어졌다.

특히 집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갈애(渴愛), 혹은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갈애란 목이 말랐을 때 간절히 물을 찾는 것과 같은 타오르는 욕망을 가리킨다. 삼독은 무언가를 가지려고 욕심을 냈는데[貪],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瞋]를 내고 어리석은[痴] 중생의 모습을 의미한다. 갈애와 삼독 역시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집착과 다르지 않다. 결국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집착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했다가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해 보자. 이런 경우 현실에는 돈이 없지만, 마음에는 잔상이 진하게 남아 있어 아무리 잊자고 다짐해도 자꾸만 잃은 돈이 생각난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연인은 내 곁을 떠났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마음과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이 집착을 낳고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군대 시절 함께 근무했던 선임이 정기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지 않는 바람에 부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사정을 들어 보니, 휴가 때 사랑에 빠진 여인과 헤어지기 싫어 귀대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헌병대에 붙잡혀 영창에 다녀왔는데, 선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다. 이 경우에도 집착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 군대라는 현실에 그녀는 없지만,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앉아 그를 애타게 부른 것이다. 이때 속절없이 몸이 마음을 향해 질주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만다. 군대에서 여자 친구와 헤어진 장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시인 역시 사랑하는 연인과 작별하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아 홀로 울고 있다. 몸으로는 보냈으나 마음으로는 보내지 못한 것이다. 지는 별빛을 바라볼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말이다. 마음과 현실 사이에 너무 먼 괴리가 생긴 것이다. 다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오지 말자고 노래할 정도로 아팠던 것 같다. 결국 시인은 스스로 고백하고 만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픈 사랑을 노래한 김광석은 이렇게 딴지를 건다.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사실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심정이지요."

앞서 소개한 게시판에 있던 글이다. 가수의 지적처럼 그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아픈 사랑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성찰을 한 것 같다. 아주 먼 전생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고 쓴 유서는 실은 집착일지 모른다고. 그녀가 떠났다는 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웠던 것이라고. 그러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마음에서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집착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과 집착 모두 마음의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집착이 과거에 방점이 찍힌다면, 사랑은 현재에 집중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로 지금 정성을 다해 마음껏 사랑하고 이별할 때 '쿨' 하게 보내 주면 아픈 사랑 노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시인도 '독작(獨酌)'에서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은 / 진실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노래하지 않았는가. 진실한 사랑 에너지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작동하니 말이다. 앞서 소개한 수안 스님이 노래를 부르기 전 관객들에게 전한 말을 끝으로 마치려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듣고 고통의 원인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5호 | 15 | 전면광고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15억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서울에서 약106㎞ 1시간 30분, 동홍천 IC에서 17㎞ 25분거리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 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개인 토굴, 전원주택, 선방용으로 추천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4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 4개),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년 5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333-8905
010-5022-2187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사찰(기부)회향매매하려합니다.

- 위치 : 경남사천
- 3.500평이상 / 극락전30평
- 산신각/용왕당/미륵불
- 약사전/종각/ 부도탑20기
- 요사채(방7개)
  (부재시문자주세요!)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 대지 : 570평, 임야 및 밭 1500평, 건평 140평
- 건물 : 대웅전 30평,산신각 7평, 용궁 3평, 미륵불, 요사채 50평, 별채 30평
- 가액 : 5억 5천만원
- 산에 둘러 싸인 볕 좋은 도량, 편의시설 및 냉난방 완비, 목재 콘크리트 사찰

043-832-4785~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3억6천만원

010-5204-81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 총평수 : 690평(대지330평, 밭360평)
- 대웅전 36평, 요사채, 공양간 30평, 산신각8평
- 김천아포스마트시티아파트에서 3분
- 김천아포덕일아파트에서 5분
- 매가 : 2억8천

010-9048-6611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신도시 교산지구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요사채,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매매가 40억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대지 임야 등 약 1200평
- 대웅전 요사채 2동 약 86평
- 가액 : 13억 5000만원(절충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사 찰 안 내

- 정말 아름다운 사찰 급매물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대웅전 등
  11억에서 현재 8억 대출 6억
- 영천 최고급 사찰대웅전 등등
  종교용지 조경최고1700평 9억
- 경북 청도 이서 아름다운 사찰
  전통양식 대웅전 등 5채 6억5천
- 대구 동구 000종단본부
  대웅전, 종무원, 산신각 등
- 대구사찰: 12억 땅 7백평
  신도 일천명, 대웅전 등등
- 진주시내 중심사찰 20억원
- 팔공산암자 : 2억원 호조건
- 고령사찰 : 2억원 건평 170평

053-745-9999,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태화강 부근 2층 법당포함 35평
- 도시가스 사용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6 만원
- 시설비: 600 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4185-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산334
- 종교부지(대지) : 약 462평(대웅전, 산신각 등 다수)
  법당평수 : 약 133평(1층, 2층, 3층) / 불상 다수 외
  요사채 : 약 82평(1층, 2층)
- 기타대지 : 3,238평(도로, 답, 전, 임야, 주차장 등)



- 장점 : 1. 도로는 대형버스 이용 가능하며, 사찰까지 포장됨(주차장 넓음)
  2. 주변 경치가 좋고, 하천(계곡)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사진 참조)
- 가격 : 협상(2025.2 종교시설 제외 감정평가액 12억원)

010-3862-0398(스님) / 010-4196-6070(관리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2000만원

010-5316-566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소재 대구 1시간 거리
- 법당, 주방, 방 2, 화장실 2
- 시설비 : 1300만원, 보증금 500/40

010-7942-9015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35호 | 16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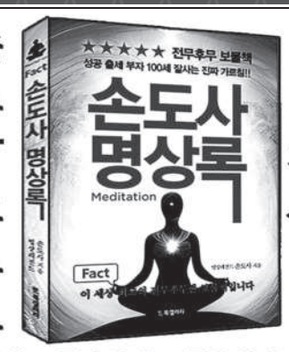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천하제일 적중률!

손으로 짚어 안되는 것이 없는
구단구궁법 교실
상 표 등 록 : 40-0863341
서비스표등록 : 41-0213393
저 작 권 등 록 : C-2011-003967
특허 2일 완성 학생모집

법화 종헌 정흥교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 불교연합회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스님구함

행자, 처사님,
공양주 보살구함

(태고종)부산 만덕동
만덕사

010-3840-4355

포교원 할 스님 찾음

- 비구니 환영
- 건물주가 협조 함
- 서울 목동사거리 시장옆 2층
- 공양주 부전 일할분 쓸분
- 결혼할 분 정보 있고 서울 명동 결혼
- 물새는 곳, 방수, 페인트 전문

010-5381-1419

장생탕제원

암, 당뇨, 백혈병, 전립선,
조루, 발기부전

한밤중에 자다가 뒷다리에 쥐가 난다
(혈액순환을 잘되게 하세요)

농협 : 352-0632-0488-93,
하나은행 : 577-910361-13007
예금주 : 김 정 태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33길 18

식이요법 · 자연요법 · 면역요법

010-2046-0260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현대불교신문 광고시 '무료' 영상광고 제공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YouTube '사찰복덕방'을 검색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QR코드 찍으시면
영상으로
사찰을 볼 수 있어요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⑫ '놀아주는 여자'(2024)

"차별·혐오 대신 공감·이해하길"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의 작가가 쓴 기획의도에 이런 말이 있다.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온 말이다. 검은색을 가까이하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하면 붉어지니,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어울리라 하였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말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든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데 도대체 나쁜 친구를 알아내는 기준은 무엇일까? 아니, 나쁜 친구가 있다고 치자. 그럼 그 나쁜 친구는 어떻게 친구를 가려서 사귈 것인가? 자기보다 좀 덜 나쁜 친구를 찾아야 할까?

'놀아주는 여자'의 서지환(배우 엄태구)은 '불독파'라는 전국 최대 조직폭력 집단 보스의 외아들이다. 아버지 밑에서 조직 생활을 하던 그야말로 '나쁜 친구'이다. 그런 지환이 조직을 물려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불독파를 해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국 세 군데에 공장을 둔 '목마른 사슴'이라는 육가공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다. '목마른 사슴'의 특징은 직원의 80%가 전과자라는 점이다. 갱생의 의지가 확고한 전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회사이다. 더 이상 '까마귀'로 살지 않겠다는 지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은하(배우 한선화)는 '미나와 놀아요'라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를 만드는 키즈 크리에이터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은하는 야외 활동이나 귀찮은 행사도 마다하지 않고 자원해서 온몸으로 아이들과 놀아줄 뿐만 아니라 소아병동을 찾아가 봉사하며 아이들의 웃음꽃을 피워 준다. 은하의 목표는 그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고 살아갈 힘을 주겠다는 것이다.

은하가 이런 꿈을 꾸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은하의 어린 시절은 빚을 지고 잠적한 아버지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깡패들이 집을 찾아온 기억밖에 없다. 사는 일에 치여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엄마를 대신해 놀아줬던 사람은 주인집 아들 현우 오빠였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오빠가 무서운 아저씨에게 끌려간 뒤로 소식이 끊겼다. 은하는 현우 오빠가 자신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다. 그리고 '현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옛날 그 현우 오빠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버릇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검사 장현우(배우 권율)를 만나는데, 검사는 현우 오빠의 꿈이었다. 과연 이 현우가 그 현우 오빠일까?



사진출처=JTBC공식홈페이지

'까마귀' 노는 곳에 간 '백로' 이야기
'놀아준다'는 상대에 온전한 공감 의미
고통 이해 바른 길로 이끄는 게 보살 삶

작가의 기획 의도에서 힌트를 얻자면 '놀아주는 여자'는 '까마귀' 서지환이 노는 곳에 '백로' 고은하가 어울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다. '백로' 고은하는 '까마귀' 서지환의 검정 깃털을 그 자체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깃털 색이 함께 어울려 노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면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이해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드라마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제목의 '놀아주는'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차적으로는 현우 오빠가 은하와 놀아주고, 또 은하가 아이들과 놀아주듯이 말 그대로 '놀아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누군가와 놀아주려면 기본적으로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키가 작은 상대이면 내가 몸을 낮추어야 하고 나이가 어린 상대라면 나의 행동과 말투도 어린아이의 것이어야 한다. 나의 것만을 고집해서는 제대로 놀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 '놀아준다'는 말의 깊은 의미는 결국 나를 버리고 온전히 상대에게 공감하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누구나'에는 보통의 중생은 물론 지옥 중생까지 포함된다. 엄청난 죄를 지어 지옥에서 고통 받는 존재마저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이런 가르침과 조금은 달라 보이는 설명이 있다. 바로 천태불교에서 말하는 '십계호구(十界互具)'라는 것이다. 천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열 가지로 구별한다. 흔히 알고 있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도윤회의 세계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의 네 세계를 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열 가지 세계가 각각 나머지 아홉 세계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십계호구(十界互具)'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부처님 세계에도 지옥세계가 갖추어져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지옥세계가 부처님 세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부처님 세계에 어떻게 지옥세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인가?

이 말은 부처님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은 지옥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가벼운 고통인지 무거운 고통인지를 따지지 않고 지옥 중생의 고통이 있다면 그 모든 고통을 공감해 주고 이해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이름 중에 세간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세간해(世間解)'가 있는 것이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나빠 보이는 친구를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 '까마귀' 지환의 세계에 '백로' 은하가 뛰어들어 검은 세계를 옅게 해 주듯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어서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살의 삶일 것이다.

시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나의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에 공감하여 그들이 나의 세계에 들어올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혹시라도 내 주변에 길을 잃은 까마귀는 없는지, 또 내가 놀아줄 까마귀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그래야 나도 기꺼이 그에게로 가서 꽃으로 장엄한 백로가 되어줄 수 있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선근 쌓는 공덕과 유정 성숙시켜 다라니 독송 중생 이롭게 이끌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㉓ 지장보살의 위신력

〈지장십륜경〉에서 강조하는 지장보살의 위신력은 선근을 쌓는 공덕과 '수능가마'나 '사자분신삼매'와 같은 모든 삼매를 따라 안주하고 유정을 성숙시키는 한편, 다시 무수한 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지장보살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공덕의 법을 성취하였으니 뛰어난 공덕 창고이며, 보살의 밝고 뛰어난 눈이요, 열반으로 나아가는 대상(隊商)의 우두머리이다."

또 "지장보살은 일체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해 그들의 소원을 만족시키는데, 그것은 마치 여의보와 같고 묻어 놓은 창고와 같기 때문이니라. 지장보살은 모든 유정을 성숙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견고한 대원(大願)과 대비와 용맹정진을 저 보살들보다 더 많이 닦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장보살에게 공양해야 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시방에서 보살마하살과 성문과 천인, 야차, 건달바 등은 온갖 금·은가루와 갖가지 꽃과 향 등을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렸습니다. 그때 지장보살은 이 공양거리를 세존께 회향하면서 게송을 읊습니다.

"하늘과 사람과 용과 신의 공양을 받으시고, 시방의 보살들 모두 와서 받드네. 세상을 구제하는 큰 공덕 있다는 말씀 들었나니, 원하옵건대 저의 훌륭한 공양을 받으소서."

이에 세존께서 다시 게송을 읊으셨습니다.

"견고한 슬기와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유정의 한량없는 고통을 없애나니, 온갖 묘한 즐거움을 베풀기는 보배의 손과 같고, 미혹의 그물 끊는 것은 금강과 같네. 대비와 슬기를 일으키고 정진을 갖추고 묘한 공양을 받들어 세존께 올리며, 바다 같은 지혜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나쁜 길에 빠진 모든 유정을 두려움 없는 언덕에 오르게 하네."

그때에 지장보살은 과거 수많은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아 지니고 있던 '다라니'를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라니의 힘으로 지장보살은

① 세존의 제자인 비구, 비구니와 남녀 신도를 제도하여 모두의 기억과 (불법을)지키려는 뜻을 잊지 않도록 증장시키며

② 수명, 신체, 무병, 힘이 몸에 넘치도록 증장시키며

③ 명성과 자구(資具), 친구와 제자와 깨끗한 계를 증장시키며

④ (설법을)많이 듣는 일과 지혜라고 하는 재보(財寶)를 보시하도록 증장시키며

⑤ 오묘한 선정과 인욕과 방편을 증장시켜 깨달음으로 이끄는 진리의 광명과 대승의 바른 길에 나가는 것을 증장시키며

⑥ 법의 밝음과 유정을 성숙시킴과 대자대비와 일체 선법을 증장시키며

⑦ (부처님의) 오묘한 칭호가 삼계에 두루 가득 차는 일을 증장시키며

⑧ 법비(法雨)가 삼계를 남김없이 적심과 모든 대지의 정기(精氣)와 자양분을 증장시키며

⑨ 일체 중생들이 사업을 잘 이룸과 바른 법의 정기가 선행하도록 증장시키며

⑩ 지혜광명과 육바라밀의 행과 오안(五眼)과 관정(灌頂)을 증장하여 천상에 나는 일과 열반을 증장시키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며, 신주(神呪)를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장보살의 신주(神呪)는 65게(揭)의 짧은 내용으로, 신통스러운 주문의 가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다라니)은 모든 존재의 티끌을 능히 씻고 싸움의 겁[鬪爭劫]과 흐리고 악한 뜻을 맑히며, 흐린 사대(四大)를 능히 맑힙니다. 또 이 다라니는 흐리고 악한 맛과 악한 기운을 맑히고, 희망을 채워주며 가색(농사)을 이루어 줍니다. 이 다라니는 일체의 부처님과 여래세존께서 가호하시며 일체의 보살들로 하여금 가호하고 수희(隨喜)하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 이름은, '구족수화길상광명대기명주총지(具足水火吉祥光明大記明呪摠持)'라 하며, 제가 과거 수많은 부처님께 직접 받아 지닌 것으로 일체의 선한 법을 증장시키며, 일체의 수용하는 자구(資具)를 증장시킵니다.…이 다라니는 세존의 감로(甘露)의 가르침을 흥성하게 하고 오래 머무르게 하여 삼계의 중생들을 모두 다 이롭고 안락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그 힘은 수많은 과거세로부터 수행하며 닦아온 것으로서, 오히려 미륵, 길상, 관자재, 보현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지장보살에게 귀의해 이름을 부르고 예배공양하며 소원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장보살에게는 모든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특유의 '다라니'가 있어서 외워서 수지 독송하면, 부처님과 함께 삼계의 중생들을 다 편안하고 이롭게 한다 하니 가히 지장보살의 힘을 알 것만 같습니다.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⑫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 바치는 노래

▶한줄 요약
효를 강조하는 〈부모은중경〉은 불교 경전임에도 새 나라가 지향하는 이념에 걸맞았기에 서민 교화를 위해 다량으로 간행되었다. 14세기 전후로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됐다.



孝 담은 불경, 유교 국가 조선에 퍼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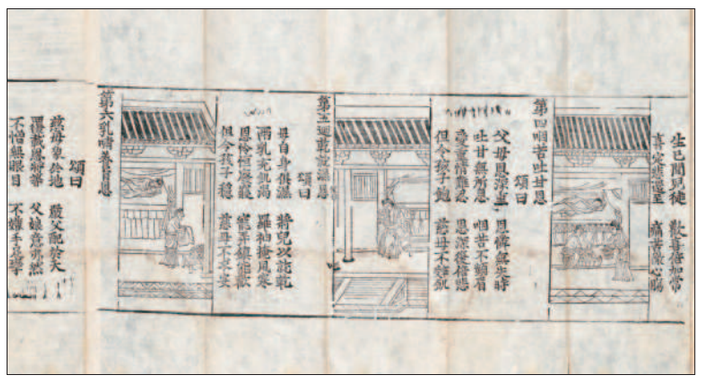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수십 차례 인쇄되고, 널리 읽힌 불교 경전이 있다. 바로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하 〈부모은중경〉)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모의 크고 깊은 은혜에 보답하는 경전'이란 제목과는 달리, 〈부모은중경〉은 중국에서 불교가 토착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성립된 위경(僞經)이다. 삭발과 출가, 그리고 왕과 부모에게 예경을 올리지 않는 불교의 모습은 효(孝)를 중시한 중국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불교도들은 효를 강조한 경전들을 한문으로 번역했고, 당나라 초기에 이르면 유교의 효(孝) 사상과 불교의 보은(報恩) 사상이 융합된 〈부모은중경〉을 찬술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후대에 만들어진 '가짜 경전'은 오히려 이러한 경전이 만들어지고 널리 믿어졌던 사회 구성원들이 중요시한 가치를 보여 주기에 가치가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발문, 조선 143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사진 제공=emuseum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의 권두, 조선 143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사진 제공=emuseum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중 '어머니의 열 가지 은혜', 조선 143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사진 제공=emuseum

유교 국가의 불교 경전

조선시대에 간행된 〈부모은중경〉 대부분에는 경전의 내용을 도해한 여러 점의 판화가 실려 있다. 이처럼 판화가 삽입된 〈부모은중경〉이 우리나라에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14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짐작된다.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부모은중경〉은 전례 없는 규모로 급격히 간행되었다. 고려 말에 대두한 신진사대부가 주축이 되어 건국한 조선은 성리학에 기반한 국가였다.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부모은중경〉은 불교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새 나라가 지향하는 이념에 걸맞았기에 서민 교화를 위해 다량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의 〈부모은중경〉 판본 중 시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명빈김씨(明嬪金氏, ?~1479)가 발원한 판본이 있다. 이 판본에는 간기(刊記)가 없어서 간행의 자세한 경위는 알기 어렵지만, 경전의 가장 끝머리에 수록된 발문(跋文)에서 1432(세종 14)년에 '대공덕주 명빈김씨'가 발원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 〈부모은중경〉 판본에 대해서는 1416(태종 16)년에 간행된 〈장수경(長壽經)〉 말미에 실린 발문(跋文)이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에 의하면, 호월헌산인 첩봉(湖月軒山人 疊峯)은 〈법화경(法華經)〉과 〈은중경(恩重經)〉이 불법의 정수이며, 〈장수경(長壽經)〉은 진전(眞詮)의 묘결(妙訣)이기에 이 경전들을 시급히 간행하고자 원을 세웠다. 이에 여러 사람에게 시주를 받아 우선 1404(태종 4)년에 〈법화경〉과 〈은중경〉의 판각에 착수하여, 3년 후인 1407(태종 7)년에 이를 완간했다고 한다. 이 〈장수경〉과 1432년에 명빈김씨가 발원한 〈은중경〉은 제책 상태나 서체가 서로 흡사하다. 이로 미뤄보아 명빈김씨가 1432년에 발원한 〈부모은중경〉은 1407년에 개판된 판본을 저본으로 삼아 궁실에서 간행한 것으로 짐작된다.

명빈김씨는 공식적인 간택 절차를 밟아 입궁한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의 후궁이었다. 그녀는 태종의 재위 연간에 유일하게 정1품 빈(嬪)의 지위에 있었던 후궁이며, 그녀의 거처는 명빈전(明嬪殿)이라 불릴 만큼 격이 높았다. 천수를 누렸던 그녀는 태종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7대에 걸쳐 조선의 왕들을 보필했기에 내명부(內命婦)의 큰 어른으로서 존숭을 받았다. 불심이 깊었던 명빈김씨는 여러 경전을 개판하여 간행했고, 불상을 조성해 사찰에 봉헌하는 등 많은 불사에 대시주(大施主)로서 동참했다.

태종은 불교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조선 초기의 신료들 역시 왕실 여성의 불사가 지나치다고 비판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불경을 펴내는 일은 먼저 세상을 떠난 왕과 왕비, 그리고 부모의 명복을 빈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해 갈 수 있었다. 또한 첩봉의 발문이 말해 주듯이 조선 초기 〈부모은중경〉은 〈법화경〉과 함께 '불법의 정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시되고 있었다. 명빈김씨가 발원한 〈부모은중경〉은 15, 16세기에 걸쳐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여러 차례 복각·모각되어 간행되었다. 다량으로 간행된 불경은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이들에게 확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14세기 전후해 우리나라 유통 시작
15, 16세기 전국 사찰서 다량 간행
명빈김씨 발원본 인쇄 선명 최선본
어머니 은혜 등 도해 판화 21점 실려

글과 그림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

새로운 나라 조선에서 새롭게 판목을 만들어 인쇄한 〈부모은중경〉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을까. 명빈김씨 발원본 〈부모은중경〉은 고려시대에 간행된 〈부모은중경〉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 판본은 경전 앞뒤의 표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아 불상의 복장(腹藏) 안에 공양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판화의 새김이 선명하고 인쇄된 상태가 선명한 최선본(最善本)이다.

경전의 첫머리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란 경의 제목으로 시작되며, 다음 행에는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요진의 삼장법사 구마라습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번역했다)'라 하여 역자를 밝혔다. 쿠차 왕국 출신의 구마라습(344~413)은 중국 후진(後秦)의 황제 요흥의 명에 따라 장안에서 불경 번역 사업을 총괄하며, 수많은 인도의 불교 경전을 정확하고 문학적인 한문으로 옮긴 불세출의 역경승이다. 중국에서 성립된 위경의 판본 중에 이렇게 구마라습을 역자로 제시한 경우는 드물다. 이 〈부모은중경〉을 만든 이들은 '구마라습'의 이름을 빌려 경전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 판본에는 경전의 내용을 도해한 모두 21점의 판화가 실려 있다. 경전은 부처가 길을 가다가 오래된 해골에 예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아이를 배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준 어머니의 열 가지 은혜를 도해한 10점의 판화, 어머니의 막중한 은혜를 8가지 비유를 통해 도해한 8점의 판화로 이어진다. 경전의 후반부는 은혜를 갚기 위해 참회하고 삼보에 공양하는 장면, 그리고 불효자는 아비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효자는 그 공덕으로 인해 부모가 하늘에 태어나 쾌락을 누린다는 내용을 도해한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21점의 판화 중 가장 핵심은 어머니의 은혜를 열 가지로 정리하여 글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열 가지 은혜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가짐을 조심하는 은혜, 산고를 감내하는 은혜, 산고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보며 근심을 잊는 은혜, 쓴 음식은 삼키고 단 음식을 뱉어서 먹여 키우는 은혜, 아기에게 마른자리를 내주며 키우는 은혜, 젖을 먹여 양육하는 은혜, 깨끗이 씻겨 가며 키워 주는 은혜, 자식이 장성하여 길을 떠날 때 걱정해 주는 은혜, 자식을 위해 악업도 마다치 않는 은혜, 항상 자식을 애처롭게 여기고 위하는 은혜를 말한다.

이 판본은 화면의 우측에 게송을 배치하고, 좌측에 그림을 배치한 구성을 보여준다. 각 장면에는 지붕과 기둥을 묘사하여, 전근대시기 여성의 주된 생활공간이었던 실내 전경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장면에는 어머니와 시녀 혹은 어머니와 자식 등으로 구성된 2, 3인의 인물이 등장할 뿐이다. 비록 표현이 세밀하거나 풍부한 것은 아니지만 불교미술 속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흔치 않은 예이다.

여기서 다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란 경전의 제목으로 돌아와 본다. 경전의 제목에서는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 경전의 본문에서는 '어머니'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 칭송하고 있다. 이 점은 아버지의 은혜를 강조한 유교의 〈효경(孝經)〉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기도 하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
본 수 14:30 재 금 20:30 / 토 22: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대행 스님

모든것이 보이지 않는데서 보이는데로 나오는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또다시, 항상 함께하면서도 너 나로 따로따로 있다가 또 이렇게 한데 한자리를 하고 있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분단된 우리가 너무도 요새 물바람이 세어서 위태위태한 것을 볼 때에, 지금 현재에 닥쳐오는 문제를 볼 때에, 엊그저께가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싶군요. 옛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신라와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있었을 당시의 얘길 잠깐 하겠습니다. 나는 역사를 배우지도 않았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국난에 빠져서 허덕일 때는 생각이 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 하기 전 얘깁니다마는 원광 법사라는 유명하신 스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보다도 더 상세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참 도가 높고 공부를 잘하셔서 그 때는 부처님 법이 절대적이고 이름도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까지 안 퍼진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름이 퍼졌던 그분이 그럼 신라에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한마음 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항상 그것을 거름으로 하여 현재에 자기의 본분을 지키면서 나갈 것을 가르쳤죠. 신라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사람들의 차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용도에 따라서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화랑들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대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섯 가지 예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법도를, 계율을 말입니다. 첫째는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잊지 말고, 둘째는 효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셋째는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에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고, 넷째는 친구들을 사귀되 한마음으로서 둥글게 사귀며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둘 아닌 도리를 가르쳤고, 다섯째는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을 죽이게 될 경우 살생이 아니라 가려 가면서, 한 사람을 죽일 때도 열 사람 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려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죽일 때도 여름이나 봄에는 알을 낳으니깐 죽이지 말 것이며, 가려서 죽이라는 얘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을 낳고 사는 부모로서의 마음은 애틋하기 그지없으니 짐승들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똑같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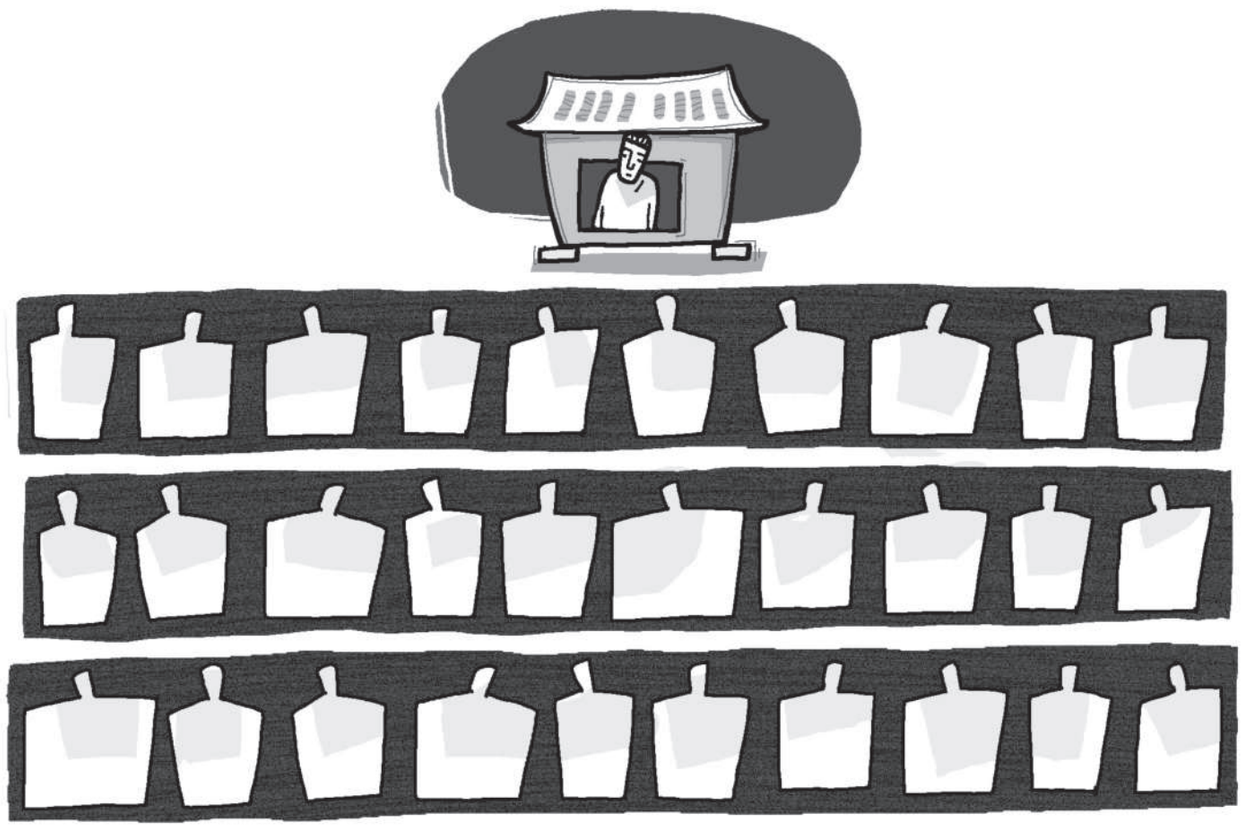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게 가르치시면서도 역시 한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일깨워 주셨고, 그때 당시에 모든 왕이든 왕족이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원광 법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들었답니다. 그렇게 따르고 듣는 반면에 원광 법사 스님은 참, 대도를 펴시면서 한마음 도리를 심어 주신 거죠.

화랑들이 이어서 이어서 전달을 하면서 수많은 화랑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았답니다. 수많은 화랑들이 이어받은 것은 물론 아낙네들도 이어받으며 왕족들도 이어받으며, 신라뿐만 아니라 옆의 나라들도 전부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삼국 통일을 하는 데도 원광 법사 스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거기에 베풀어져서 많이 기여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정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생각에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이닥친 문제들, 한마디만 이렇게 하죠. 부처님의 뜻을 받는 불제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숭고하게 호국 불교를 염원하면서 게을리하지 않고, 한생각을 그렇게 호국 불교의 정신으로써 사찰마다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나가서 몸뚱이로 돌아치는 게 아니라 항상 앉아서 염원하고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우리 산 사람들의 행위만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만도 아니죠. 정치를 하는 데 학생들 문제도 국민들 문제도, 벌어지고 있는 게 어디서 왔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닥치면 그건 당연히 스스로서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와 같이 나도 똑같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렇게 물결치듯이 바람 치듯이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에 다 흡습을 못 했으면서도 통일을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원광 스님의 그 뜻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둘이 아닌 오늘인 것입니다. 그때의 오늘도 오늘인 것이요, 오늘의 오늘도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어리석어서인지 모르지마는 내가 오늘날에 생각해보니 4·19도 있었고 6·25도 있었고, 또는 생각해 보니 삼국 통일 할 때 그때의 영령들도 지금 산 사람들에게 물결과 바람으로 치는 동시에…. 산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어느 누구가 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당면해 벌어지고 있고, 또는 그렇게 물결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침착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죠. 마음에 따라서 육체가 움죽거리듯이 스스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마음의 동요를 시키고 학생들의 마음을 동요를 시키고…, 6·25 사변 때도 얼마나 무참히 죽었습니까? 4·19 때도 학생들이 무참히 죽었으며 또는 삼국 통일 할 때도 그렇게 무참히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요기에 관한 건만 얘기하느라고 그러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그 잠재의식 속에 입력되었으면, 때에 따라서는, 즉 말하자면 쓰레기통의 벌레들이 우르르르 한 떼로 나와서 수만 마리가 퍼지듯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만큼, 잠재의식의 영령들이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고 국난엔 여지없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당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데만 알고 안 보이는 데는 등한시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왜 그렇게 국사들을 모셨던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국민을 이끌어 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서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물결을 막아야 할 줄 알고, 그 물결을 응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령들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영령들의 군부를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세웠던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보이는 것만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에 사람이 몇이며 또는 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고정됨이 없어서 그대로가 참선이며 화두이다

☞ 19면에서 계속

가 몇이며 잠수함이 몇이며 차가 몇이며, 비행기가 몇이며 속사포가 몇이며 총이 몇인가만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한다 이 소립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 일체 모든 살아가는 생활이 그대로 심성 과학이며 도며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우리가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을 키우면서 그 자라나는 애들이 또 주인이 되면서 일꾼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갖지 않고는 앞으로 더욱더 힘에 겨운 문제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겠죠.

여러분도 지금 살아 있으면서 이 도리를 모르고 몸이 있을 때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마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 있는 대로 팔짝팔짝 뛸 겁니다. 나로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근중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주간 법계의 문제도 그렇지마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생각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가며, 사회를 이끌어 나가며, 국가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도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지금 균형을 잡아서 물바람이 칠 때는 바로 물바람으로 막아야 하고, 불바람이 칠 때는 불바람으로 막아야 하고, 흙바람이 불 때는 흙바람으로 막아야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잘 이끌어 나가면 보이는 세계로 잘 이끌어지는 그런 도리를 정치하는 사람일수록 잘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 끌고 가면 온 국민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인데, 어떤 사람은 똑똑히는 말은 안 하겠지만 싸움을 안 하고도 손만 닿는 사람이 있다면 '손만 닿게 해라, 그냥 먹겠다.' 이러한 문제도 당면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잘못된 개념과 어떠한 사람이 잘못한다 나무랄 그런 시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몇 해가 지나서도 잘못한다면 '너는 잘못하니까, 밟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한 반면에 똑똑히 말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며, 여기서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귀정을 짓는 그러한 도리가 바로 그 뜻입니다. 사람이 못하면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이 해야죠.

이 세상에는 세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방치해 둔, 아마 요런 조그마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딴 데서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역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 지르고 죽이고 돌멩이질 하고 태우고 그렇게 데모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는 못 봤을 겁니다. 이것이 그 애들 잘못이 아니라 이건 국난입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겸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느 자식이 내 자식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 아님이 어디 있으며 정치를 하는 사람도 내 아버지이며 내 오빠며, 내 부모며 바로 내 형제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나쁘다 어디를 좋다 하겠습니까? 좋다 나쁘다 하고 싸울 때가 따로 있지….

월남에서도 많은 경험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집을 잃고 전세방도 없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셋방으로써 근근득생하다가 겨우, 지금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게 움죽거릴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지금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디다. 너무 방치해서, 너무 방탕해서, 너무 이론이 많고 겨워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것을 왜 생각하느냐? 지금 시대에 앞으로 나아가지만 그래도 반드시 참고적으로 밑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니요,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 하고 있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데 뒤에서는 뒷받침을 했습니다. 도교로써, 도심으로써. 그래서 얘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한생각으로서 합심해서 부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내 형제, 내 국민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물결치는 것은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는 한생각에 의해서, 어디서 오더라도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한 계단을 내려서 이보경계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합니다. 그건 보살행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보살행은 이 모든 일체가 평등함으로써 주처의 뜻을 모두 한마음으로서 귀결짓는 반면에 아마도…, 예전에 6·25 났을 때에 밀고 들어간 맥아더 장군이나 또는 박 대통령 또는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도 역시 그때에 일본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그 군부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결사단이 정해지고 그래서 영령들이 지금도 역력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그 의식이 남아 있고. 의식이 남아 또 부산이나 지금 군묘지나 우리가 급할 때는 때에 따라서 그렇게 귀결을 짓고 보이지 않는 데서 물결칠 때는 보이지 않는 데서 물결을 일으키는, 즉 보이지 않는 군부를 일으키는 그런 이보경계도 있다 합니다. "있다 합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배우고 가는 도중에 부처가 된다, 법신이 된다 하기 이전에 행을 그대로 하는 것이 보살의 도리요, 사람의 도리요, 바로 말 한마디 한마디 법의 뜻을 그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보살의 행을 한다' 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각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 바로 그것을 놔야 된다. 밑 빠진 두멍에 놔야 된다. 자기를 믿지 못하고 누구를 믿느냐. 만약에 자기 주먹이 마음이라면 자기 주먹을 믿어라 이거야, 자기 주먹을 믿어! 이 손가락이 왜 다섯 개가 됐느냐? 오온이 한 주먹에 들어 있어. 십선이 한마음에 들어 있고 팔정도가 바로 사무 사유, 이 세상 우주의 섭리까지도 전부 한꺼번에 들었거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하시고만, 때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고 인사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열 가지든 만 가지든 그 속에서 다 해결이 나는 거니까. 듣는 사람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으로서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기 때문에 들어만 줘도, 우리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더 빠르고 그 뜻도 알게 돼요. 여러분이 행을 해 나가는 데도 물론 그대로가 법이라고 하고 여여하다고 하지만 첫째, 놔야 된다,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놓는다. 둘째는 모든 생활이 참선이며 일체 한군데로 들고 나는 것이 전부 화두며, 바로 참선이다 이겁니다.

>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국민을 이끌어 나가려면**
>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균등하게 균형을 잡아서**
> **마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일체 중생이 다 지금 그 뜻을 안다면 여여하게,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균형을 잡아서 스스로 해 나가게 돼 있어요. 진짜로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나가는 데는 항상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스님네들이든지 누굴 막론해 놓고, 괜히 조그마한 거 큰 거 가지고 성내지 않는다. 크고 작은 것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 또는 말을 할 때, 성을 내고 와락와락 말을 할 땐 벌써 얼굴상이 달라져. 웃으면서 조용조용히 얘기할 때, 할 말을 다 하면서도 화합이 되고 그것은 싸움이 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는 이런 판국에 왜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도 하대해서 하지 말고 생각조차도 언제나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보살행이라는 것이 하도 말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끄트머리로 '모든 소유를 밑 빠진 두멍에 놓는다' 해야죠.

모든 중생은 고정됨이 없이 평등하여서 그대로 축이며 참선이며 화두다. 일체가 고정됨이 없어서 공덕 계율을, 행을 배운다. 개성은 평등하여서 행함 없이 행하는 까닭은, 사람의 불성은 평등하여 마음과 상이 없는 까닭에 견고한 용맹이 스스로 생긴다. 정진은 평등하여 마음과 행을 스스로 세우지 않는 것이 일상삼매 행이며, 평등선정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평등한 고로 생각하는 바 없이 법주(法住)에 나는 것이며, 말과 정(定)이 두루 하여 둘로 보지 않고 모든 신통을 스스로 굴리며, 신통은 세울 바 없이 평등하여 말이 구족하며, 법의 뜻이 두루 하며, 법계가 평등하여 끄달리지 않는다.

게으르지 않고 한마음의 법을 내어 중생들을 평등한 심성으로 이끌어 청정한 마음으로 함이 없이 이끌어 주며, 함이 없이 이끌어 가는 그 사실이 바로 이름해서 삼십이상이 구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살계를, 보살계율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데 우리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계율이며, 그대로 함이 없이 하며 보살행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갸륵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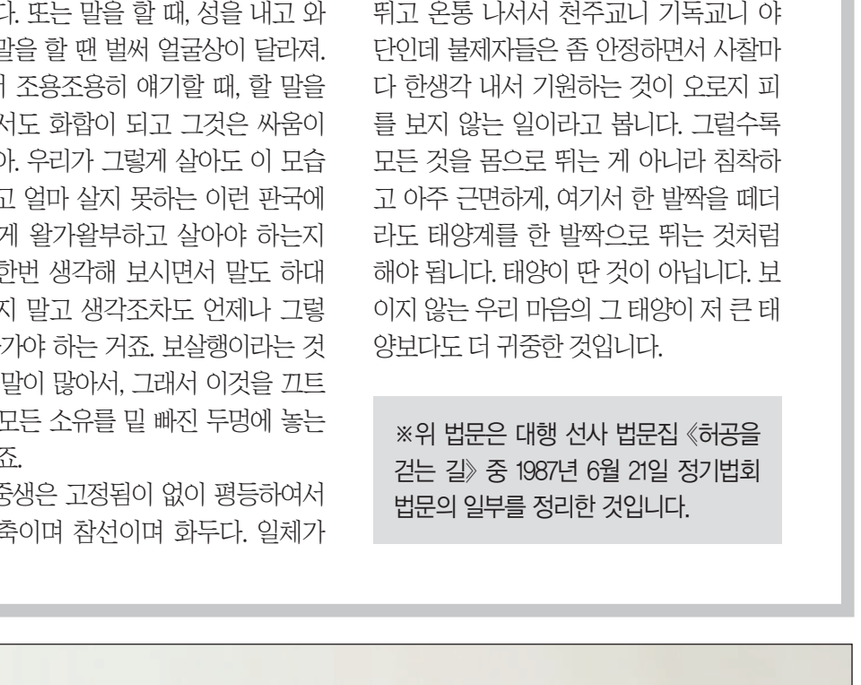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행을 해서 법도를 안다면 우린 우주하고도 섭리가 같이 통하기 때문에 어떠한 거든지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바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정말이지 우리는 좋은 이 바닥에서, 예전에 삼국 통일 했듯이 부처님의 뜻이 이어져서 우린 통일을 할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는 여러분도 그렇고 또는 은연중에 모든 불자들도 그렇고 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목숨을 걸고 육신으로 뛰고 온통 나서서 천주교니 기독교니 야단인데 불제자들은 좀 안정하면서 사찰마다 한생각 내서 기원하는 것이 오로지 피를 보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럴수록 모든 것을 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아주 근면하게, 여기서 한 발짝을 떼더라도 태양계를 한 발짝으로 뛰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태양이 딴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그 태양이 저 큰 태양보다도 더 귀중한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6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수치심 밀려올 때 아이는 밀치고 소리친다

⑩ 불가촉천민 니디를 바꾸신 부처님, 부모 교육 '자존감' (5)

자존감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니디를 다시 떠올려 보자. 똥치기를 하며,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그.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어떤 관계도 꿈꾸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길 위에서 부처님과 마주쳤다. 그 만남 하나가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다.

부처님을 만나 놀란 니디는 허둥대다 손에 들고 있던 똥통을 기울였고, 악취 나는 똥물이 부처님의 옷에 튀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는 온몸이 굳고 숨이 막혔다. '나는 또 실수했어. 그것도 부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나는 이런 놈이야. 이래서 모두가 날 피해.'라는 자기 비난 속에 웅크렸다.

니디의 행동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충동적인 아이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과 행동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예기치 않게 만난 부처님의 존재에 놀라 당황했고, 사고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해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충동성이 강한 아이들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자극에 즉각 반응하며, 수치심으로 인해 감정이 폭발하고 행동으로 표현한다.

말이나 판단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도 전형적인 충동성의 특징이다. 충동적인 아이들은 감정이 치솟는 순간, 머릿속에서 정리되기도 전에 친구를 밀고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고 나서야 '내가 왜 그랬지?'라고 후회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감정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아니라, 더 깊은 수치심과 자기 비난이다. 반복되는 실수와 질책은 반성보다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든다.

니디는 "모두가 날 피하고 싫어해"라고 생각한다. 이는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고다. 충동적인 아이들도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낙인화 되고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 "엄마는 동생만 좋아해" 같은 말을 하며,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결국 니디의 실수는 단순한 행동의 실패가 아니라 충동성과 수치심, 자기비난, 타인에 대한 해석이 뒤엉킨 복합적인 정서 구조의 결과였다. 이 장면은 충동적인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징적 장면이다. 어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 실수 이면에 감춰진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나는 괜찮은 존재일까'라는 서글픈 질문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노여워하지 않으셨다. 조용히 니디에게 다가가셨다. 실수한 자신을 그대로 받아주는 눈빛,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따뜻한 말 속에서 니디는 실수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부정과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던 니디는 '나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갖게 되었고,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실수는 행동이 아닌 마음의 언어일 뿐
교정보다 필요한 건 감정에 대한 공감

부처님의 태도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깊이 일깨워 준다. 똥물이 튀었지만 부처님은 얼굴을 찌푸리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 조용히 다가와, 실수한 그 순간 그대로의 니디를 마주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부모 역시 아이가 실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가라앉히고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표정과 눈빛에서 먼저 '지금 나는 안전한가'를 감지한다.

부처님은 실수보다 존재 자체를 먼저 보셨다. 아이가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부모가 "왜 또 그랬어?" 대신 "지금 어떤 마음일까?"라고 물어 준다면, 아이는 미움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 받는 존재라고 느낀다. 실수를 고치기보다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먼저다.

"괜찮다"는 말은 실수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실수마저도 품고, 그 순간의 아이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다. 부모가 행동을 고치기보다 감정을 이해하려고 할 때,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지켜낸 채 실수와 마주할 수 있다. 수용 없는 교정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감추게 만든다.

무엇보다 부처님의 태도 속에는 관계를 이어가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다. 부처님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니디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다가갔다. 부모가 "이럴 줄 알았어"라는 비아냥 대신 "네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라고 말할 때, 아이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조율할 힘을 얻는다. 실수를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다는 감각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결정적 기반이 된다.

끝으로 부처님은 니디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계셨다. 실수했지만 괜찮고,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부모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넌 할 수 있어", "다시 해 보자"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 믿음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첫 신뢰가 된다.

결국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실수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 실수를 한 아이의 마음결에 함께 머무는 것이다. 실수 속에서도 존재가 존중 받는 경험, 그것이 자존감을 자라게 하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다.

자존감은 실수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서 자라지 않는다. 실수하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경험, 그럼에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자란다. "괜찮아, 다시 해 보자." 그 한마디가 충동적인 아이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버팀목이 된다. 그리고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순간 니디의 삶이 바뀌었듯, 오늘도 아이의 마음 한 편에 햇살 하나가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일까요?

⑪ 허리 통증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 아니에요?" 외래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생기면 곧장 '디스크'부터 떠올립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이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허리 디스크'라는 용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디스크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학적 진단명으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통증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비특이적 요통, 그게 뭘까요?

허리 통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 요통 환자의 약 80~90%는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비특이적 요통'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X-ray나 MRI를 찍어도 명확한 병변이 보이지 않는 통증"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특이적 요통은 대부분 근육이나 인대의 미세한 손상, 잘못된 자세, 오래 앉아 있는 습관, 심지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생활 중 허리를 삐끗하거나, 장시간 운전 후 뻐근함을 느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이 경우 대부분은 며칠에서 수주 안에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

디스크 돌출? 흔하지만 꼭 아프진 않습니다

MRI를 찍어 보면 종종 "디스크가 삐져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디스크가 돌출되었더라도 반드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4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무증상 디스크 탈출이 관찰됩니다. 즉,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것과 통증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통증이 심한데도 영상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증을 단순히 '보이는 병변'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통증은 뇌가 해석하는 감각이기에, 동일한 병변에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고 반응합니다.

디스크성 통증의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엉덩이에서 다리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 디스크성 신경 압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 통증과 함께 한쪽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있다면 이는 좌골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악화되고 걷거나 서 있을 때 오히려 나아진다면, 이는 디스크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영상 검사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코어 근육 강화 운동 통증 예방
증상 따른 접근 · 생활 습관 개선

MRI가 만능은 아닙니다

MRI는 척추 질환 진단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요통 환자가 처음부터 MRI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MRI를 권장합니다.

- 6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 저하가 생긴 경우
- 배뇨 또는 배변 장애가 동반될 때
- 암, 감염, 골절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우선 보존적 치료(약물, 물리 치료, 생활 습관 조절)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MRI에서 디스크 돌출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이 아니라 증상과 기능입니다.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누워 있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나친 안정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특이적 요통의 경우,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한 일상 활동은 계속 유지하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실제로 장기적으로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코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허리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야 디스크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내 몸에 맞는 치료'

허리 통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그 원인과 해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인의 치료 경험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증상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중요한 질환이지만, 모든 요통의 원인도 아니고, 항상 수술이 필요한 병도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나친 걱정보다 바른 정보와 꾸준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맺으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디스크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요통은 시간과 관리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며, 무리한 검사나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해와 실천입니다. 허리 통증이 생겼을 때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증상에 맞는 접근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한 척추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지욱
거인병원 척추클리닉 과장



전법 일기

낡은 승복 입고 경내 손수 관리
단단한 수행 삶 가슴 깊이 남아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은 눈 때문에 많이 막혀 약속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서미사 주지 스님(故 일면 스님)께서 통도사 부근의 토굴에서 용맹정진 수행을 마치시고 해제하신 날이자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날이라, 처음엔 공항 배웅을 정중히 거절하셨지만 여러 번 간청 드린 끝에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님께서는 마치 여름옷처럼 얇고 낡은 승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는 매서운 날씨에 눈보라까지 몰아치는 날 그런 옷을 입고 계시다니, 깜짝 놀라 인사를 드린 후 어찌 된 일이냐고 여쭈니, 스님께서는 한국에 입국하실 때 입었던 승복은 이미 벗어 다른 스님께 드리고, 그 스님의 가장 낡은 승복을 대신 입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지 스님은 칠십 중반의 연세셨지만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주지 스님을 뵌 것은 2000년, 미국 시애틀에 머무르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미국인으로부터 서미사 이야기를 듣고, 여름방학을 맞아 뉴욕에서 온 딸과 함께 지도를 보며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넓은 대지 위 작은 언덕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대웅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계사 대웅전만큼 크진 않았지만 한국 전통 사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 모습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불보살님께 삼배를 올리고 법당 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주지 스님께서 처음 보는 저희 모녀를 향해 공양을 하고 가라 하셨습니다. 공양간 절밥이 맛있다고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젊을 적 통도사에서 공양주를 하셨다며 음식도 잘한다고 웃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고등학교 시절 쇼펜하우어의 철학 서적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출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오대산 사자암 중대나 토굴에서 홀로 수행하며, 한 번 선정에 들면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오대산 백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아는 분이 들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서미사 경내는 아주 넓었지만, 주지 스님께서 혼자 손수 관리하셨습니다. "절이 잘 유지되어야 신도들이 오래도록 불법을 들을 수 있는 터전이 된다"며 잔디도 직접 깎고, 건물 수리도 직접 하셨습니다. 신도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시고, 특히 홀로 되신 연로한 분들을 찾아 병문안을 가시며 불법을 전하고 위로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땅에 한국 전통사찰을 우뚝 세우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주지 스님께서는 2년 전 열반에 드시며 6과의 사리를 남기셨습니다.

눈보라 치던 겨울날 공항에서의 그 만남과 스님의 웃음, 얇은 승복 너머로 비쳐지던 단단한 수행자의 삶은 지금도 제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송마나의 **시절인연**

깨고 싶지 않은 부처 되는 꿈

6월의 한낮, 산들바람이 이마에 내려앉았다. 살포시 눈을 떴다. 금계국이 가득한 들판에서 나와 노닐었던 흰 구름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아, 소파에서 깜박 잠이 들어 꿈을 꾸었구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좋지만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쉬웠다.

아름다운 꿈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세상이 각박해도 꿈을 지닌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험하고 먼 길을 갈지라도 푸른 꿈을 품은 사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깨지는 꿈은 참된 꿈이 아니다. 바람에 쉽게 부서지는 꿈은 진정한 꿈이라 할 수 없다. 꿈은 영원에 뿌리를 내리고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꿈의 세계는 경계가 없다.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도 꿈속에서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다. 눈 내린 겨울에도 우리는 꿈속에서 파랑새가 되어 열대의 해변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 꿈을 지닌 사람은 존재의 뿌리에서 솟아오르는 생명력으로 현실 너머의 세계를 향해 끝없는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꿈은 소망과 상상력의 근원이다.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신화를 창조해 왔다. 그 신화에는 인간이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생과 죽음을 극복하려는 실존적 꿈이 담겨 있다. 동화 역시 인간의 도덕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려는 꿈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다. 아무리 이성과 개념의 힘이 강하다 해도 상상력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 무(無)의 차원까지 꿰뚫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림 · 최주현

인간이 무한의 세계에 들어서지 못하면 유한한 존재로 머물 수밖에 없다. 인간은 흙덩이가 되고, 짐승이 되며, 기계가 된다. 시간에 갇힌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무한한 우주를 창조해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문학, 미학, 심리학, 철학, 종교는 물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창작의 산물이다. 창조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무의식의 날개를 펼쳐 창공으로 날아올랐다. 소크라테스는 독주를 마시고 죽기 직전에 이솝 우화의 이야기 몇 편을 시로 지었다. 〈파이돈〉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나는 철학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왔지만, 신이 꿈속에서 음악을 만들라고 명령했기에 시를 짓는다"고 말했다. 그는 빛나던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고, 꿈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따라 시를 지으며 이데아의 세계로 날아갔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임종을 맞이할 때 〈시편〉 22편을 읊조리며, 기적을 갈망하는 민중에게는 요나의 상징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다. 고래 뱃속에 있던 요나가 밖으로 나온 것은 부활의 상상 아닌가. 예수는 얼마나 오랫동안 천사들처럼 하늘나라로 날아오르기를 꿈꾸었을까. 인간이 무한을 꿈꾸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본향(本鄕)을 그리는 향수가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가 완성되는 꿈을 꾸어야 한다. 바로 부처가 되는 꿈이다. 이보다 더 큰 꿈이 어디 있으랴. 잠은 깨어도 좋지만 부처가 되는 꿈만은 깨어나고 싶지 않다.

〈작가〉

기자칼럼

'차별 없는 세상' 발원, 오요안나 추모 위령재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세상을 등졌다. 그는 생전 '무늬만 프리랜서' 신분으로 정규직과 다름없는 업무와 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적 보호에서 배제했다. 고인의 죽음은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방송사의 구조적 문제와 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계는 고인을 애도함과 동시에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6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봉행한 위령재가 그것이다. 스님들은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MBC 사옥을 돌았다.

이번 위령재는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 의식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자리였다. 사노위 수석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발전소, 조선소, 방송국 등 다양한 현장에서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작업의 외주화가 곧 생명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MBC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소수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부당한 고용구조에 맞선 방송 노동자들과 단체 등도 이날 고인의 죽음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별 짓고 차별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방송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위령재는 '생명의 외주화'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경고와, 불평등한 고용 구조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촉구하는 호소를 담고 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가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다. 제2의, 제3의 오요안나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차별 없는 노동 환경'과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배희정 편집국 객원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2025 선명상 지역 축제

지역사찰 프로그램

주최	날짜	지역	장소	특화 프로그램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5.27(화)~29(목)	경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심주 목걸이 체험 및 선명상 강연 등
조계종/ 인천강화전법단	6.21(토) 오후 5시~8시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	2025 인천시민 행복을 위한 국제 선명상 대회 - 선명상 강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 선명상 실참 (선명상위원장 금강스님) - 인천시민을 위한 축원 (어산어장 동환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6.28(토)~29(일)	부산	송정해수욕장 쿠무다	제2회부산글로벌명상제 연계 (쿠무다 및 송정해수욕장) - 심주목걸이 체험 등
세종 광제사	7.6(일)~27(일) 매주 일요일(총 4회)	충청	세종 광제사	제1회 연꽃축제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 - 심주 명상(금강스님), 선명상 앰버서더 체험 프로그램 등
백양사/천진암	8.22(금)~23(토)	전남	백양사, 천진암	음식명상
전주 서고사	9.20(토)~21(일)	전북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청소년 명상페스티벌, 선명상 템플스테이
남양주 봉선사	10.11(토) 또는 12(일)	경기	봉선사	펫명상, 간화선 걷기명상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디지털 시대, '법재'가 진짜 자산

〈法財〉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지난 4월 국내 최대 통신기업인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는 무려 2300만 명의 휴대폰 인증 정보로, 사실상 국민 절반 가까이의 실명 기반 디지털 신원이 노출된 셈이다.

휴대폰 인증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다. 오늘날 그것은 곧 개인의 삶을 입증하는 '디지털 주민등록증'이며, '전자 도장'이기도 하다. 그런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디지털 사회가 지닌 불안정성과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단지 기업 보안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나의 것'이라 믿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쉽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재물과 명예, 권한과 정보는 평소엔 '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는 다음과 같이 법문한 바 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인연이 다해 떠날 때는 나를 괴롭히지만, 법재(法財)는 영원불멸하여 조상에게는 복과를 주고 자손에게는 밑거름이 된다." 〈실행론〉4-6-11(가)

이 말은 재산의 무상함을 경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물질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책임과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정보 자산 또한 그러한 무상의 영역에 속한다. 결국 해커 한

정보 유출, 디지털 사회 불안정성 드러내
정신적 자산 법재는 해커도 훔칠 수 없어
불자는 참된 내 것 알고 간직하며 살아가

명이 한순간에 그것을 빼앗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내 것'이라 할 수 없다.

반면, 해커도 훔칠 수 없고 죽음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법재'이다. 법재는 불법(佛法)을 배우고, 닦고, 실천하면서 쌓아가는 정신적 자산이다. 이 자산은 은행에 예치되지 않지만, 업(業)의 통장에는 분명히 기록된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복덕이 되어 자신과 자손에게 선연을 만든다. 법재는 해킹될 위험도 없고,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죽음 이후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다음 생에서도 자비의 인연을 이끌어 주는 씨앗이 된다.

세상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고, 대부분의 삶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물질의 허상을 다시 묻고 있다. 진짜 내 것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언제든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무엇이 진짜 내 것인가'를 다시 묻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진각성존의 말씀대로, 재물은 인연이 다하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법재는 인연이 다해도 나를 살린다. 해커도 훔칠 수 없고, AI도 복제할 수 없으며,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법재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

불자란 세상이 무언가를 빼앗아 가더라도 잃지 않는 '참된 나의 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안심(安心)과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혁신은 수행이다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혁신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낯섦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낳는다. 그것이 개인을 넘어 조직의 차원에 이를 때, 변화는 늘 긴장과 저항을 동반한다. 그래서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 흐르는 '의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재편되는 시대에서 혁신을 거부하는 조직은 곧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리더십의 역할은 이 지점에서 중요해진다. 구성원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실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은 대개 리더의 몫이다. 리더가 앞서 걸으며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며 저항을 껴안고 내부의 혼란을 통합할 수 있어야 변화는 비로소 현실이 된다. 특히 오늘날처럼 디지털 전환과 세대교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지시나 통제 방식의 리더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혁신은 언제나 낡은 관성을 부수는 일과 마주친다. 이때 리더는 충돌을 두려워하기보다, 충돌을 진단의 신호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반발은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구성원의 말 뒤에 숨은 맥락을 읽고, 변화의 필요를 감정이 아닌 의미로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조직심리학자들은 이런 과

변화 첫걸음 내딛는 일은 리더의 몫
조직 유기체 작동하게 숨 불어넣어야
흐름 조율하는 겸손·단단 리더십 필요

정을 '변화의 단계별 수용'이라고 부른다. 처음엔 충격과 저항, 이어지는 혼란과 회의, 그리고 점진적인 수용과 내면화이다. 리더는 이 전 과정을 통과하며 조직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혁신은 불교 수행과 비슷하다. 만물만생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고 화하여 돌아간다. 혁신이란 고인 물을 흘려보내는 일이며, 스스로에게 익숙해진 것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것은 늘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이 움튼다. 혁신은 기존 구조의 균열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질서를 실험할 수 있는 전환기적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혁신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물러섬 없는 인내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축적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리더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겸허함, 익숙한 방식에 매달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결단력. 이런 내면의 훈련이 선행되어야 조직을 이끌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정진이라 부른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행위로서 혁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진이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

조직의 리더란 단지 성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혁신의 리더는 앞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으며 흐름을 조율하는 존재다. 이 겸손하면서도 단단한 리더십이야말로,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덕목이다.

社 說

조계종 총무원 정상화 마음 모으자

급박했던 95분이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천장에서 화재가 확인된 6월 10일 10시 22분부터 화재 진압이 완료된 11시 57분까지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사부대중은 침착하고 발 빠른 대처로 추가 피해를 막아냈다. 무엇보다 어떠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는 평소 매뉴얼에 따른 꾸준하고 철저한 소방 훈련이 있기에 가능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총무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훈련이 이뤄졌다고 한다. 3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박물관 기획전 성보 이운도 차질 없이 진행된 것도 모두 평소 화재 대응 준비가 되어 있기에 가능했다.

이제 남은 것은 화마를 털어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이 역시 잘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 종로 조계사 맞은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에 임시 상황실을 설치하고 통합 안내 전화를 운영하는 등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화재는 저의 부덕"이라며 종도들에게 머리 숙여 참회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지만, 총무원장 수반으로 책임을 표한 것이다. 종무행정이 정상화되는 것은 총무원의 몫만이 아니다. 종도 모두가 협조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조계종 첫 비구니 법계위원, 참종권 첫발

조계종 사상 첫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10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본각·계호·광용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 가결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최초로 상정되는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 건은 매우 뜻깊은 안건"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명망 있는 원로 비구니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해야 하는데 현재 9인의 비구 법계위원 스님만으로 심사할 경우 해당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명사 특별 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이 참여하도록 '법계법'을 개정했다. 비구니 법계위원은 '명덕 이상 비구니 3인'을 중앙종회의 동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는 최근 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이 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비구니 스님이 심사해야 한다는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호계위원회와 법계위원회 등 종단 기구에 비구니 스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비구니 스님들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반영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단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뜻에서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됐던 비구니 스님들의 염원이 18대 중앙종회에서 실현된 만큼, 이번 법계위원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6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6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6월 1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마치 아무것도 신지 않은 것처럼, 땅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다.

이제, 당신의 발에도 진정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지금 바로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www.mahamall.co.kr

검색창에 '메쉬 어싱 수행화'를 검색하세요!


베이지▶


블랙▶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어싱 샤모아



특판가 80,000원

사계절용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